HY ERICA

한양대학교 ERICA 대표 매거진 _ 하이에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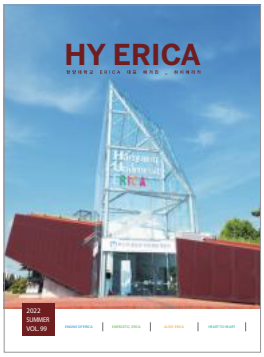


2022
SUMMER
VOL. 99

ENGINE OF ERICA | ENERGETIC, ERICA | ALIVE, ERICA | HEART TO HEART

HY ERICA

2022 SUMMER VOL.99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 국가도시의 광장을 뜻합니다. 시민권을 가진 누구에게나 열린 소통과 공유의 장. ERICA가 추구하는 비전도 같은 맥락을 갖습니다. 젊은 인재가 모여 잠재력을 꽃피우고, 사회에 올바른 변화를 불러오는 대학. ERICA는 실천하는 지식인의 광장으로 학문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부르는 대학의 역할 모델이 될 것입니다.

Photo by **손초원**

ENGINE OF ERICA

ERICA Code 04
끝없는 혁신으로
미래 가치를 증명하는 ERICA

Now, ERICA 06
ERICA의 전진은 현재 진행 중
지능형로봇 혁신공유대학으로 1년 & 8·8 로봇데이

ERICA Impact 12
현장실습으로 직무 스킬 업
ERICA 취업 경쟁력의 원천
현장실습지원센터

Focus on Research 16
미래 맞춤의약 산업 이끌 바이오 클러스터의 허브
한양 맞춤의약연구원 개원

ERICA Plus I 20
취업률 80% 도달을 향한 ERICA 핵심 취업 전략
커리어개발센터 ERICA 트로이카 전략

ERICA Plus II 24
43년 ERICA, 동문과 함께 더 큰 미래로 향한다
동문 조직 결성 추진

Always Best 28
아고라 홍보관, 화합과 공존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다
아고라 홍보관 리뉴얼 및 기부 모금 캠페인

발행 2022년 6월(통권 99호)
발행인 한양대학교 총장 김우승
발행처 한양대학교 ERICA 대외협력팀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전화 031-400-4474
기획 및 디자인 김형윤편집회사
에디터 이연주
디자이너 김은혜, 이은하



ENERGETIC, ERICA

LINC+&YOU 32
LINC 3.0 사업으로 산학연 협력생태계 혁신 강화

Start Line 36
창업의 메카 ERICA, 스타트업 학생대표를 만나다
헤딩웜 정지윤 대표, 오토노미아 김진영 대표, 콘텐츠깎는청년 최인혁 대표

ERICA Pride 40
얇지만 저항 낮은 차세대 반도체 배선 소재 개발
안지훈(재료화학공학과) 교수, 하민지 연구원

LAB in ERICA 44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기반으로 융합하고 확장한다
해양음향공학연구실

Take Classes 48
세계를 사로잡은 'K-콘텐츠'
스토리텔링 전략 전격 해부
문화콘텐츠학과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스토리텔링 전략》 발간

ALIVE, ERICA

Campus Finder 52
2년 만의 다시, 축제
거리두기 대신 '곁에 두기'
ERICA 봄 축제 'READY HANYANG ACTION'

ERICA People I 58
진정한 변화를 불러오는 기술의 가치를 실현한다
IEEP 사업단장 이선영(재료화학공학과) 교수

ERICA People II 62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결이 다른 총학생회를 꿈꾼다
찬성 득표율 88.65%, 제40대 총학생회 '결'

Special Lecture 66
한살이라도 젊을 때 알아야 할 경제 상식
김누리(경영학부) 교수

HEART TO HEART

Club Explore 68
가치있는 변화를 이루는 학생과 대학의 High-five
플라센트 X 관재팀 이경태 차장

MZ Column 72
22학번이 직접 체험한 믿고 보는 후기
ERICA 역량 새로 배우기 프로그램
(ERICA CORE: Competence-Oriented Restart program)

Maeum-Seed 74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육의 선순환
복나눔 멘토링 프로젝트 – 김정현(전자공학과) 교수

Live Sketch 78
어서 와, ERICA는 처음이지?
김서현(인공지능학과 22),
박혜빈(광고홍보학과 22)이 말하는 ERICA 핫플레이스

ERICA News 82







증명하는 대학, ERICA

젊은 인재들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으로
세상이 주목하는 실력이란 무엇인지 직접 증명하는 대학
끝없는 변화와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
연구와 혁신으로 실현 가능성을 증명하는 대학

ERICA는 산업계 변화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바탕으로
연구와 혁신, 특성화된 교육을 실행하며
대학과 학생, 지역과 산업을 견인할 미래형 인재를 양성해 왔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역량을 바탕으로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ERICA는
지역사회의 자랑, 학생의 긍지가 되었습니다.

ERICA가 증명했고, 세상이 주목한
가능성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있습니다.



지능형로봇 혁신공유대학으로 1년

ERICA의 전진은 현재 진행 중

ERICA는 지능형로봇 혁신공유대학 주관대학으로 공유교육과정 및 학사제도 마련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로봇을 통한 대학과 학과, 학생 간의 교육장벽을 해소하는 교육모델 실현을 위해 6개의 컨소시엄 대학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한재권(로봇공학과) 교수를 만나 사업이 가진 비전과 향후 기대효과에 대해 들어보자.

글 이연주 **사진** 손초원



로봇 교육을 위한 표준화된 교육과정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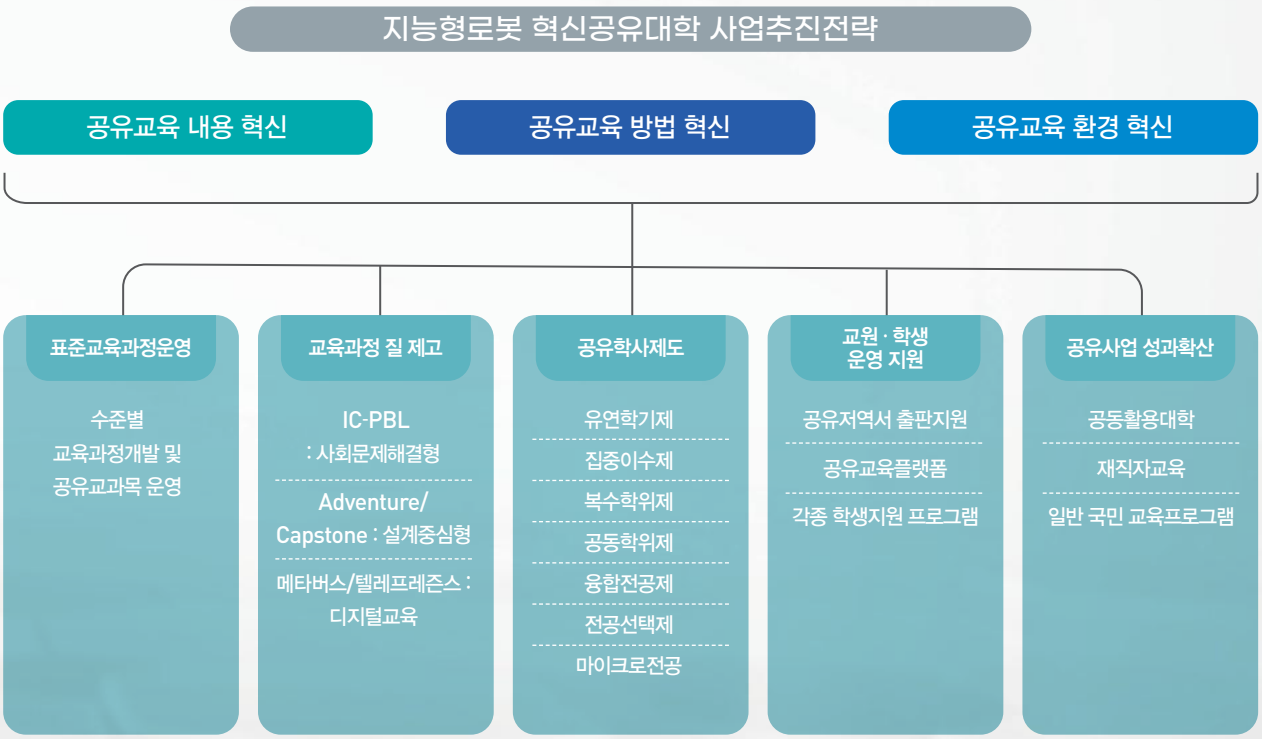
ERICA는 그동안 로봇 본질에 맞춘 표준화 교육을 모색하며 로봇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 왔다. 효율성을 갖춘 이론 교육을 비롯하여 IC-PBL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실전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기반으로 본 사업을 이끄는 ERICA는 컨소시엄 대학과 함께 대학별 특성화를 집대성하여 전문적 체계를 갖춘 로봇의 표준교육을 구축하고 있다.

7개 컨소시엄 대학별 특성화를 통한 연계

로봇은 기계, 전기전자, 인공지능을 비롯해 디자인의 영역까지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신생 학문이다. 로봇을 이루는 분야별 전문가들을 통해 특화된 교육에 공유하여 로봇 교육 분야의 기틀을 정립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폭넓은 비전을 제시하고 진로 방향 설정에 기여한다. 로봇 교육의 전문적인 정립을 위한 과도기를 거치고 있는 만큼 혁신공유대학 사업은 각 대학이 가진 경험을 토대로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표준화된 학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류는 해외에도 유례없는 사업으로 추후 글로벌 연합구축을 통해 세계 로봇공학계에도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체계적으로 표준화된 교육 커리큘럼은 일차적으로 학생들에게 수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커리큘럼을 산업체들의 교육으로 확장하여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유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산업계를 비롯한 국내 모든 구성원에게 확대시키는 것이 공유대학 사업이 가진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곧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확장된다. 산업별 연계한 특성화 트랙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실제적이고 진정성 있는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발판이 된다.



학문간 융합을 통한 로봇 교육의 확대

혁신공유대학은 대학별 교육 커리큘럼의 공유를 통해 분야별 장점을 접목하여 학습자가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이끈다. 한재권 교수는 "ERICA와 6개 컨소시엄 대학마다 각 지역에 따른 장점을 통해 분업화된 전략을 공유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고 말하며 "표준화된 교육으로 나의 특징과 성향을 파악하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로봇 분야의 방향을 가지고 졸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능형로봇 혁신공유대학이 대학과 산업계에 주목받는 이유는 모든 학문 분야와의 접목성과 미래 산업을 위한 역량 강화에 실효성을 띠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ERICA에 학부 융합 전공으로 신설되는 '지능형로봇학과'는 '공학'이라는 분야로 특정하지 않고, 다양한 학문 융합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에 따라 혁신공유대학은 이공계와 비이공계 전공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융합인재, 대학 내 전공 선택을 통한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공유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초급/중급/고급 맞춤형 표준 교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는 마이크로전공을 통해 복수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이로써 로봇에 대한 학제 간 장벽을 허물고 다양한 가능성을 도출한다.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는 강의 혁신

지난 2월에 진행한 지능형로봇 혁신공유대학사업단의 교육과정은 학습자들의 선풍적인 관심을 이끌었다. 컨소시엄 대학별 교과목의 재구성을 거쳐 제공된 커리큘럼은 학습자에게 로봇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며 효과적인 접근을 이끌었다. MZ세대로 일컬어지는 대학생 그룹이 추구하는 효율성과 집약적인 수업 방식을 반영하는 등 수업 진행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모

Mini Interview



로봇은 우리 사회를 지속발전으로 이끄는 유일한 솔루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재권(로봇공학과) 교수

Q 로봇의 미래 가치와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로봇 교육은 향후 산업계의 변화를 대비하는 큰 경쟁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산 가능성 인구의 하락, 저출산 고령 사회,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를 통해 느낄 수 있듯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는 일 할 사람이 없어서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로봇은 사회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꼭 필요한 기술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유일하게 실질적으로 물리적 서비스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로봇뿐입니다. 앞으로 도래할 세상의 필요한 존재로서 로봇의 발전은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연구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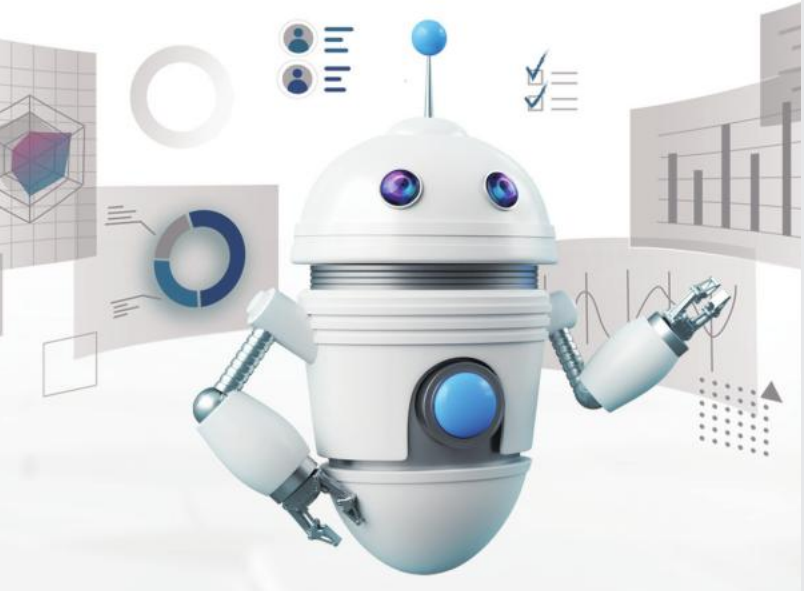
Q 본 사업 추진이 대학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통해 6년간 7개 대학의 공유교육을 탄탄하게 다지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활발한 교류로 보완을 이루고 나아가 혁신성이 도출되어 새로운 시너지로 발휘될 것을 기대합니다. 더불어 이후에는 대학을 넘어서 우리의 커리큘럼이 전 국민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확산하고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로봇 교육이 국민에게 전해지고 더 나아가 세계 속에서도 역할 모델로서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색한 결과다.

"지능형로봇학과는 모든 학과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봇 명사와의 만남' 같은 오픈 강연은 메타버스에서 여러 교수진을 통해 로봇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는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텔레프레즌스로 다양한 영역의 학생들이 로봇에 쉽게 접근하면서 커리어에 대한 시야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고의 지능형로봇 분야를 지향하며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로 전진하고 있는 혁신공유대학 사업은 미래에 역할 모델로서 그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교육 모델로서 ERICA가 가진 교육 자원은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고 있다. 미래를 앞당기는 진정성 있는 교육 나눔을 통해 학계와 미래 인력들이 가져올 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대학 간의 교류를 통한 상호보완이 학생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용준우 21학번
융합로봇시스템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대학의 커리큘럼이나 인프라는 서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각 대학의 강점을 공유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더 짜임새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혁신공유대학은 학생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메타버스로 수업이 이뤄질 때는 명사들의 다양한 로봇 일대기를 통해 학생들이 확실히 큰 호응을 보여주면서 로봇에 대해 조금 더 가깝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적극적인 교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영훈 19학번
융합로봇시스템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메타버스를 활용해 쉽게 만나기 힘든 명사들을 모셔서 강의를 듣는다는 것이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메타버스로 강연을 진행하면서 채팅을 통해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는데요. 강의자와 수강자 간의 소통이 이뤄지니 서로에게 만족스러운 강의가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흡수력 있는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도 좋은 교육 효과가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차세대와 함께 지능형로봇을 공유하다

인간과 로봇의 이상적 조화
8·8로봇데이

지능형로봇 혁신공유대학은 로봇 교육을 통한 특화된 인재를 사회로 배출하고 체계적인 로봇 교육을 확산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 가치와 ERICA의 인프라를 차세대들에게 공유하여 교육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러한 생각이 발단이 되어 인공지능UX디자인센터와 혁신공유대학 사업단이 손을 잡고 차세대를 위한 로봇 체험의 장을 마련했다.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디어 공모전

ERICA 지능형로봇 혁신공유대학과 인공지능UX디자인센터가 주최하는 8·8로봇데이는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로봇과의 교류 경험을 제공하는 쉐어 어드벤처(2022 차세대 지능형 로봇 아이디어 공모전)와 지능형 혁신공유대학 컨소시엄이 함께하는 쉐어 챌린지(혁신공유대학배 로봇 경진대회 및 어드벤처 디자인과 캡스톤 디자인 전시 및 시상) 행사로 오는 8월 8일 한양대학교 ERICA 라이온스홀에서 개최된다.

'인간과 로봇의 이상적 조화'라는 콘셉트의 8·8로봇데이는 공모전를 시작으로 추진된다. 공모전 주제는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필요한 로봇', '지구(환경)에 필요한 로봇'이다. 차세대 앞에 놓인 미래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고민하게 하고 나아가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유발하는 것이 공모전 기획의 배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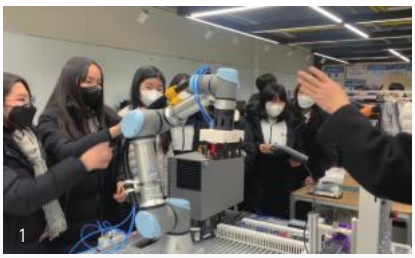
"고령 사회와 환경문제는 앞으로 아이들에게 닥칠 현실적인 미래입니다. 아직은 실감하기 어려워도 미래에 있을 사회적 문제를 고민해보고 이를 위해 로봇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를 자유롭게 상상하고 표현하는 것이죠."

공모전을 통해 이용자의 관점에서 로봇의 필요와 역할을 생각하게 하고 함께 공존하게 될 존재로서 실제적인 로봇을 인식하게 한다. 아이디어 분야는 기획과 결과로 나누어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로봇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과제를 제시했다. 만화 분야는 칸만화와 상황표현을 통해 주제나 상황을 설정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공모전 참여 작품 중 선발된 200명의 아이디어는 8·8로봇데이에 전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으로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로봇과의 거리를 좁히는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제공

"선발된 200명을 대상으로 8월 8일 당일 시상 및 교육체험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로봇에 대한 실제적인 로봇 체험과 로봇 교육, 부모님과 함께하는 로봇명사와의 만남을 경험하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8월 8일 로봇데이에 교육을 받은 학생들 중 40명을 선발하여 8월 20일,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고도화 된 로봇 교육으로 후속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UX디자인센터 송지성 교수와 공유대학 지능형로봇학과 김지영 교수는 2020년부터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대학 진로 탐방을 진행하며 공모전을 개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경험을 토대로 8·8로봇데이 진행에


1


2

1, 2.
2021년 하반기 지능형로봇 혁신공유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안산지역 중학생 대상 로봇 교육을 실시했다.

8 · 8 로봇데이

2022년 8월 8일(월), 한양대학교 ERICA 라이온스홀

행사 주요 내용

쉐어어드벤처 청소년 대상 2022 차세대 지능형로봇 아이디어 공모전

쉐어챌린지 지능형로봇 혁신공유대학 컨소시엄과 함께 하는 7개 대학 대학생 대상
· 공유대학배 로봇 경진대회
· 어드벤처 디자인 / 캡스톤 디자인 전시 및 시상

전시 구성

1부 - 차세대 200명 작품 전시
2부 - 메타버스와 함께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공연(한재권 교수)
3부 - 웨어러블 로봇 전시(한창수 교수)
4부 - 테미로봇 공연 및 교육(이병주 교수)
5부 - 현대자동차 스폿(Spot)



현대자동차의 4족 보행 로봇 스팟(Spot)은 유연한 관절과 움직임에 AI유닛을 연동하여 자율성과 기능을 강화했다.

기틀을 마련했다.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2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8·8 당일 시상 및 교육체험을 진행한다. 이후 교육 과정에서 우수한 학생 40명을 선발하여 로봇아두이노키트를 제공하고 코딩과 로봇 교육을 직접 체험해보는 ERICA 초청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8월 8일, 8·8로봇데이에는 공모전에 당선한 학생들과 더불어 그 동안의 교육과 워크숍의 마침표로 로봇에 관한 각종 이벤트 진행하게 된다. 현대자동차의 로봇견 '스팟'이 캠퍼스 잔디밭을 누비고, 참여한 학생들에게 우리의 로봇 기술을 보여주는 축제의 장. 현대자동차㈜, 한컴그룹이 후원하고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학회, 한국정보과학회, 한국공공디자인학회, 한국디자인문화학회 등 협회의 협찬을 통해 참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로봇 공학의 대표주자인 ERICA의 인프라와 인공지능UX디자인센터가 가진 사용자 경험에 대한 관점을 접목하여 로봇과 우리 삶의 연결성을 차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인간과 함께하게 될 로봇, 그리고 로봇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 사회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고 우리가 가진 기술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과 사회가 함께 어우러지게 될 8·8로봇데이는 차세대들을 성장시키는 또 하나의 자양분이 될 것이다. HY

로봇 교육을 차세대와 공유하며 우리나라 제2의 도약을 꿈꿉니다.

송지성 (디자인대학, 인공지능UX디자인센터장) 교수

8·8로봇데이로 이름하게 된 것은 88서울올림픽에서 아이디어를 연상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였던 88서울올림픽처럼, 우리가 진행하는 8·8로봇데이 역시 차세대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우리의 기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염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번 8·8로봇데이를 통해 ERICA의 혁신적인 교육자원을 사회로 확산하고 로봇 교육의 선구적 역할을 하는 ERICA를 모두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이번 8·8로봇데이를 통해 로봇에 대한 첨단 트렌드와 올바른 이해를 전달하고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을 공유하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88서울올림픽 때 '굴렁쇠 소년'이 등장한 순간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보았듯이 2022년 8·8로봇데이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내년 8·8로봇데이에는 '굴렁쇠 로봇'들을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보기를 기원합니다.

현장실습으로 직무 스킬 업
ERICA 취업 경쟁력의 원천

2019년 정보공시 기준에 따르면 ERICA 현장실습 경험자의 평균 취업률은 75.1%로, 실습 미경험자 취업률 63.8%보다 11.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도 현장실습 경험자 취업률은 75.9%로, 실습 미경험자 취업률 64.1%보다 11.8%P 높았다. 중앙일보 대학평가 중 현장실습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ERICA 취업실습 제도의 강점을 알아보자.

글 박영임 **사진** 이현구





현장실습으로 경험기반 교육 선도

연간 약 700여 명의 ERICA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다. 이중 이공계 학생은 약 45%, 인문 · 사회 · 예체능 계열 학생은 약 55%를 차지한다. 이렇게 현장실습은 더 이상 대학 졸업장이 취업을 보장해 주지 않는 시대에 취업 경쟁력을 쌓을 수 있는 든든한 지원책으로 자리 잡았다.

'ERICA 현장실습(E-WIL)'은 일통합학습(WIL, Work-Integrated Learning) 또는 일기반학습(WBL, Work-Based Learning) 형태로 운영되는 산학협력 교육모델로 2004년에 처음 도입됐다. 현장실습의 효과는 일정 기간 전공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서 실무를 익히며 현장 감각을 쌓고 진로를 탐색하는 것이다. 한편, 기업에게는 인성이나 기술 습득 능력을 사전에 검증해 우수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실제 현장실습을 진행했던 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2019년 현장실습에 참여했던 학생 중 16명이 실습했던 기관에 정규직으로 취업했으며, 2020년에는 2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현장실습을 처음 시행했을 때만 해도 이공계열 학생 139명과 39개의 안산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단기과정(계절제)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2008년부터 인문사회 계열로 확대하고 참여기관도 수도권으로 넓혀 현재는 포스코건설, 오비맥주,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200여 개 실습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태다. 신규 기관을 발굴할 시는 업체에 직접 방문해 철저히 근무환경을 살펴본 후 협약을 맺는다.

프로그램은 방학기간에 1~2개월간 운영되는 단기과정과 학기중에 3~4개월간 운영되는 장기과정으로 나뉘며 방학과 학기를 연계할 수도 있다. 2014년 국내 최초로 추가 학기를 활용하는 '선택형 4+1학년제(Optional Co-op)' 과정을 도입해 수업 학기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현장실무를 익힐 수도 있다. 2019년에는 미국 장기 현장실습 과정을 도입해 국제적인 감각과 해외기업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중단됐으나 사태가 완화되면 재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 기업에서 장기간 실습할 수 있는 장기과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장실습 이수생 연도별 취업률 비교 자료

	연도	현장실습 이수생	현장실습 미 이수생	전체 취업률(정보공시)
취업률	2019	75.14%	63.79%	69.1%
	2020	75.92%	64.15%	67.3%
	2021	72.93%	58.98%	62.8%



한국의 모범, 세계적인 모델로 육성

이형석 현장실습지원센터장

Q ERICA 현장실습이 타 대학의 모범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동안 시스템을 잘 구축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60여 대학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2012년 현장실습지원센터를 설립해 타 대학보다 일찍이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전문성을 강화하고, 2008년에는 국내 최초로 현장실습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해 참여 기업과 학생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현재 플랫폼 소스를 공개해 국내 60여 개 대학에서 ERICA 현장실습 플랫폼을 도입, 현장실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Q ERICA 현장실습의 목표와 비전을 말씀해주세요.

ERICA 현장실습은 자타공인 국내 넘버 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ERICA의 노하우와 우수 모델을 타 대학들과 공유하기 위해 지난해 KACE(한국산학연계현장실습지원협회)를 설립했습니다. 국내 대학 현장실습의 구심점이 될 KACE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표준형 실습학기제를 안착시켜 세계적인 모델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직무역량에 사회생활 경험까지 “현장실습, 안 할 이유 없죠”

신명주 학생(화학분자공학과 17)

Q 현장실습은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요?

4학년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진로를 고민하던 중 제약회사에 취직하고 싶긴 한데 적성에 맞을지 걱정이었습니다. 마땅히 알아볼 곳이 없어 직접 부딪쳐보자는 생각으로 현장실습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죠. 처음 지원했던 업체에서 아쉽게 탈락하는 바람에 두 번째 도전 끝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Q 기업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나요?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제약회사인 에스티팜 반월캠퍼스의 CO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의약품 위탁생산) 1팀에서 일했습니다. 의약품 생산 절차나 용매 사용량 등 공정 관련 최적화를 연구하는 팀으로, 다수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는데 그중 하나의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실험실 규칙과 실험노트 작성법 등 사내 규정을 익힌 후 용매 사용량이나 투입 당량을 조절하는 실험에 투입됐습니다. 그 밖에 팀 주간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Q 학과 수업과 다른 점은 무엇이었나요?

학교에서는 이론 중심으로 공부해 분자 간의 역학 등 미시 세계 수준의 메커니즘 위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훨씬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좀 더 멀리 보고 크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실험실과 사용하는 장비도 다르더군요.

Q 현장실습을 통해 어떠한 역량을 쌓을 수 있었나요?

팀원은 총 11명이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일하며 상사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제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지 등 직장생활 내 대인관계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친구들을 대할 때와는 다르니까요.

Q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8시 30분까지 출근하려면 한대앞역에서 7시 30분 통근버스를 타야 합니다. 그러려면 6시에는 일어나야 하죠. 원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편이 아니라 매일 새벽에 기상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통근버스를 놓쳐서 눈물을 머금고 택시를 탄 적도 있었죠. 그래도 6개월 동안 한 번도 지각을 하지 않아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Q 취업준비에는 어떠한 도움이 됐나요?

당연히 진로를 정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려면 자기소개서 등 서류 전형 및 면접을 통과해야 하는데, 실제 환경에서 면접을 경험해볼 좋은 기회이죠. 그리고 현직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점도 이점입니다. 취업에 관해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지금도 계속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Q 향후 계획 및 목표를 말씀해주세요.

막연하게 제약회사 취직을 꿈꾸었는데 현장실습 결과 제약회사 일이 적성에 잘 맞아 확실하게 진로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입니다. 대학원 졸업 후 제약회사의 연구원으로 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Q 현장실습을 준비 중인 다른 학생들을 위해 조언을 해준다면?

통근이 가능한 곳이라면 무조건 참여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원하는 분야에서 일해볼 수 있고, 사회생활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학생인 점을 감안해 다들 잘 대해주니 걱정하지 말고 지원해보세요. HY

미래 맞춤의약 산업 이끌
바이오 클러스터의 허브

한양 맞춤의약연구원 개원



한양대 ERICA의 한양 맞춤의약연구원(HY-IPT, Hanyang Institute for Precision Therapeutics)은 한양대학교의 미래 전략인 '바이오헬스 분야의 지속가능형 사회혁신 산학협력 모델'의 한 축을 담당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지난 2월 개원식으로 첫발을 내딛었다. 서혜명(과학기술융합대학 분자생명과학과) 초대 한양 맞춤의약연구원 원장을 만나 중장기 목표와 비전을 들어봤다.

글 박영임 **사진** 이현구



맞춤의약연구원

Hanyang Institute for Precision Therapeutics

한양 맞춤의약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연구환경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집단연구와 융합연구를 목표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국내 생명과학 연구와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향한 비전으로 설립됐다. 바이오 융합 핵심 연구집단으로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 질병진단 및 치료 융합 기술에 대한 전주기적 연구를 촉진하여 원천기술 개발, 기술이전 및 기술투자, 교원창업, 바이오 융합 생태계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한다.

바이오 산업 시대의 포문을 열다

"바이오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핵심 산업분야입니다.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건강 증진과 질병 퇴치를 위해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맞춤의약, 차세대 생명과학 연구와 바이오 헬스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양 맞춤의약연구원이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문을 연 한양 맞춤의약연구원의 서혜명 원장이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시대적 사명을 띠고 지난해 6월부터 개원을 준비한 한양 맞춤의약연구원은 앞으로 바이오신약, 표적치료제, 분자의료진단, 유전자 치료제, 세포치료제, 혁신의약 소재, 바이오 빅데이터 · 인공지능 기반 정밀의료 연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4층 규모의 (구)실용영어교육관을 맞춤의약관으로의 단독건물 리모델링도 진행중이다. 이곳에는 세포공정코어, 유전자공정코어, 바이오분석코어, 이미징분석코어, 산학협력 라운지 등의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런데 맞춤의약이란 무엇일까?

"쉽게 설명하자면, 미래에는 어떤 질병의 환자에게 치료제를 처방하고 복용할 때에 개인의 유전자 정보나 병력, 가족력, 생활습관 등등의 빅데이터로부터 환자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치료가 구축되게 될 것이고 그를 향한 맞춤형의약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맞춤의약, 다른 말로 정밀의약이라고도 합니다. 머지않아 환자 맞춤형 예방, 진단, 치료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바이오 핵심 연구자들 총집결

한양 맞춤의약연구원이라는 기치 아래 약학대학[약학과], 과학기술융합대학[분자생명과학과(23'의약생명과학과), 화학분자



서혜명
한양 맞춤의약연구원 초대 원장
(과학기술융합대학 부학장,
분자생명과학과 교수)

서혜명 원장은 세포신경과학연구실을 운영하며 퇴행성질환(치매, 파킨슨병, 헌팅턴병 등)에 관련된 병리학적 기전 연구, 세포의 선택적 퇴행에 관련된 후성유전학적 기전 연구, 세포퇴행을 극복하기 위한 유전자 치료, 세포치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 국내 공동연구팀과 함께 헌팅턴병 유발 신경세포 손상 기전을 발견하여 주목을 받았다.

공학과, 응용수학과(23'수리데이터사이언스학과)], 예체능대학 등의 다양한 소속과 연구배경의 30여 명 교수진이 모여서 구성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연구 배경을 지닌 교수들이 함께하게 된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명과학 · 바이오산업은 집단연구와 융합연구라는 새로운 연구 환경 플랫폼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딥러닝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없이는 생명과학 및 바이오 관련 연구들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관련 연구자가 모든 기술에 대한 모든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기는 어렵죠. 그러한 인재를 육성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이러한 문제들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융합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융합연구는 시대가 요구하는 당연한 연구형태입니다."

그래서 한양 맞춤의약연구원은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협업하는 융합연구가 기본 시스템으로 가동된다. 각 분야별로 관심분야와 필요한 연구 분석 장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의 필요들을 찾아 나가는 것은 중요한 시작점이 되겠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공통의 관심사로 의기투합할 수 있도록, 매월 센터 미팅, 워크숍, 심포지엄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렇게 융합연구를 진행하면 고가의 장비를 공동으로 구입해 공유할 수 있으며, 아울러 기초의학분야(MRC), 이학분야(SRC), 공학분야(ERC) 등의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이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같은 대형 국책 집단과제도 추진하고 있다.

한양 맞춤의약연구원은 맞춤신약 연구개발센터, 맞춤면역의약 연구센터, 디지털헬스 연구센터, 나노테라노스틱스 연구센터의 4개 센터로 구성돼 있다. 각 센터별로 역할을 분담하는데 먼저 맞춤의약 소재, 약물전달 플랫폼, 나노의약품, 체외 진단 의료 소재를 연구하는 나노테라노스틱스 연구센터가

진단을 맡고, 맞춤신약 연구개발센터와 맞춤면역의약 연구센터의 2개의 센터가 질환 표적 치료 연구에 전념한다. 질환 연구는 암 · 노인성 질환과 염증 · 감염성 · 환경성 질환에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맞춤신약 연구개발센터는 암 · 노인성 질환 표적치료를, 맞춤면역의약 연구센터는 염증 · 감염성 · 환경성 질환 및 면역신약개발을 목표한다. 디지털헬스 연구센터는 이 모든 연구의 기반이 될 바이오 빅데이터 연구와 분석을 담당하며, 함께 바이오신약개발에 역할을 담당하고, 각 참여 연구자들은 해당 집중 연구센터들의 다양한 연구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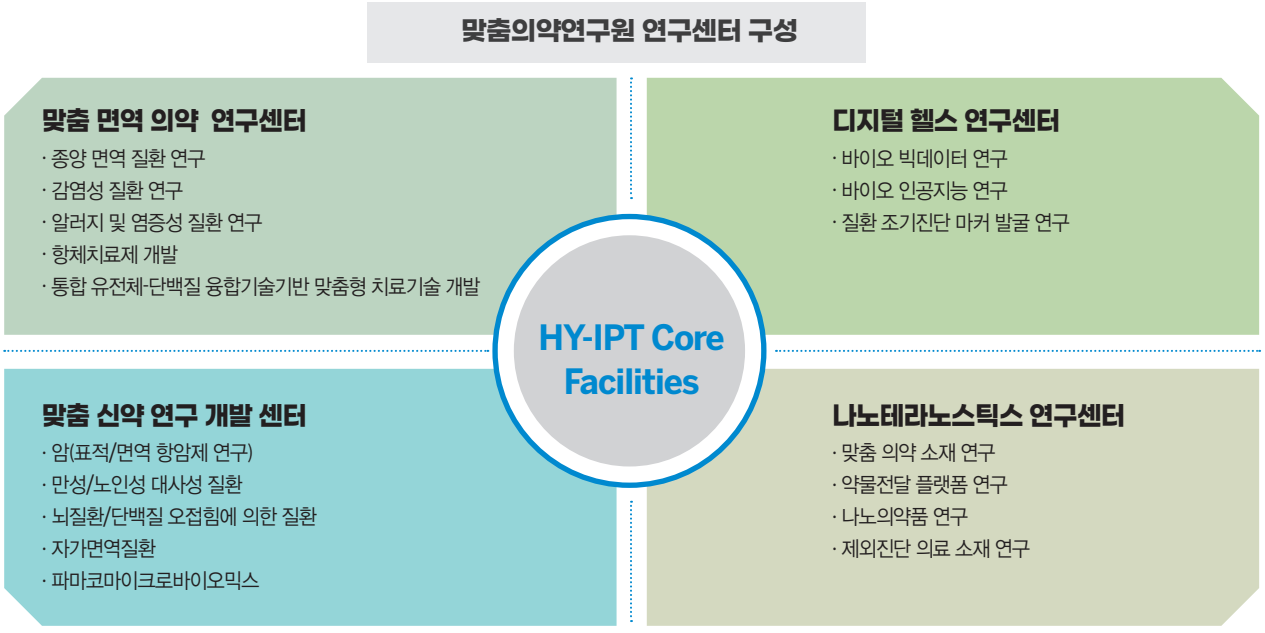
ERICA 미래 발전 전략의 중심

한양 맞춤의약연구원의 협업 시스템은 캠퍼스를 넘어 지역사회와 산업체까지 아우르는 개방형 혁신 연구 체계 플랫폼을 지향한다. 이미 22개 바이오 · 제약회사, 연구원 등과 MOU를 체결했으며, 실제적인 협동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향후 ERICA에 조성되고 있는 캠퍼스 혁신파크 내의 BT (Biotechnology), IT (Information Technology), 대학병원, 제약,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등과 연계하여 더욱 공고한 산학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와 안산시 등 지자체의 연구 지원과 지역 바이오 · 제약회사 및 연구소를 유치하는 등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상생전략을 펼칠 것이다. 이러한 전략들을 통하여, 산업체는 장비 공유, 기술 자문, 신약 개발, 프로토 타입 제품 생산에 힘을 얻고, 연구자는 여러 협력 연구를 통하여 고가치 창출 맞춤신약개발에 실질적인 접목을 실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산/학/연/병/관의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통하여, 바이오산업/맞춤신약개발 분야의 미래 4차 산업시대가 요구하는 바이오헬스 산업분야 고급인재 양성에 더욱 정진할 수 있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즉, 연구와 교육, 그리고 교육과 취업 및 창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한양 맞춤의약연구원의 단계별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현 단계에서는 수요에 기반을 둔 융복합 연구를 진행하며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지만, 연구원이 안정 궤도에 오르는 대로 연구 성과별로 기술이전 및 기술 사업화(창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리고 ERICA 산단 지주회사 내 자회사 형태로 바이오 및 제약회사도 설립할 예정이다. 이는 연구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자립화 방안이 될 것이다.

"산학협력 등 바이오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궁극적으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포함하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바이오 클러스터 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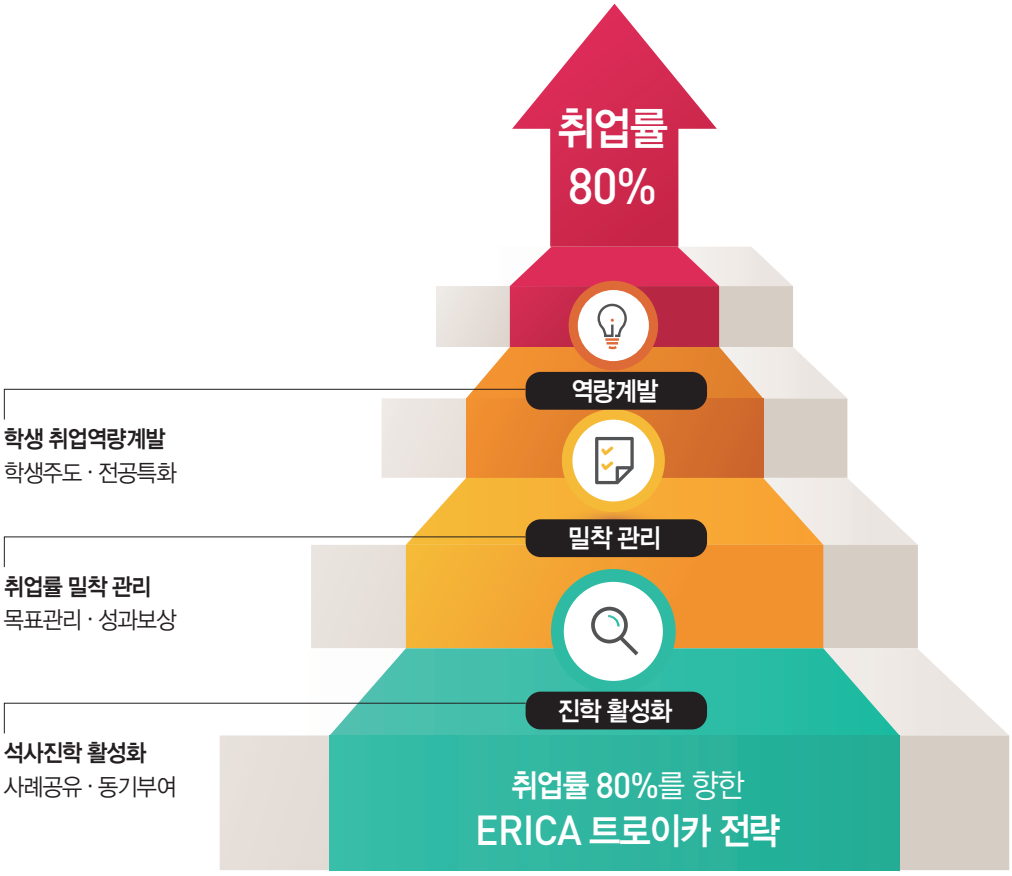
원대하고 선명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한양 맞춤의약연구원! 한 걸음 한 걸음 꿈을 향해 내딛고 있는 그 발걸음에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가슴 뛰는 무한한 가능성이 뚜렷하게 겹쳐 보였다. HY



취업률 80% 도달을 향한 ERICA 핵심 취업 전략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현장실습을 비롯한 실제적 경험을 도모하고 있는 ERICA는 전문적인 취업 전략을 구성하여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의 고민과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아가 성공적인 취업의 문을 열기 위한 ERICA 커리어개발센터의 전략을 들어보자.

글 이연주 사진 이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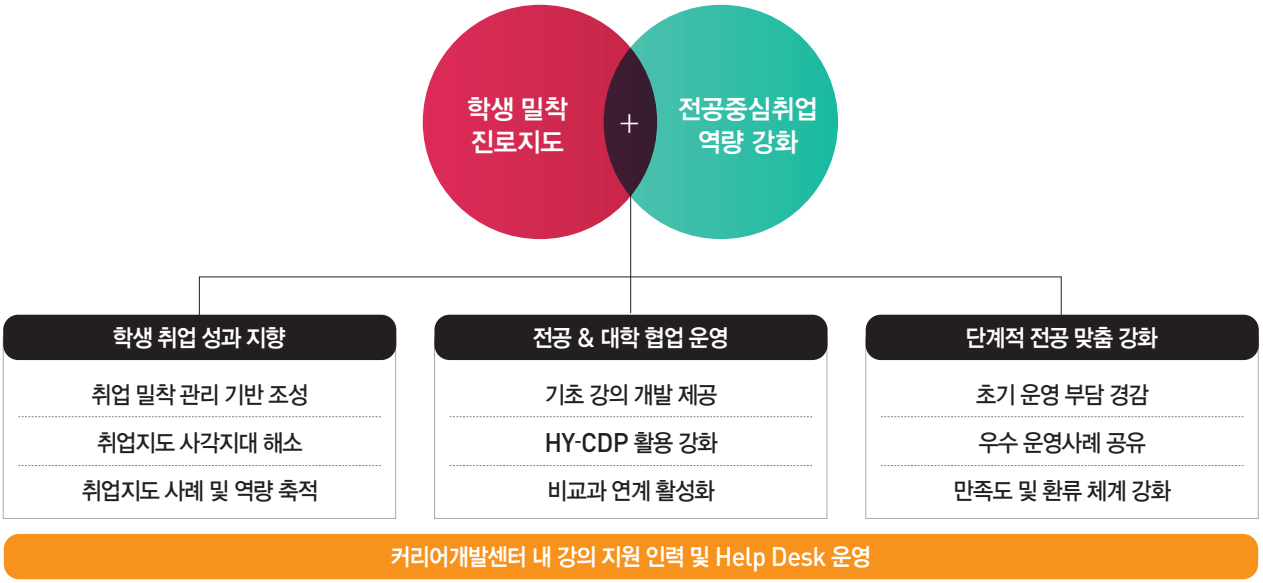


취업률 목표 달성을 위한 ERICA 트로이카 전략

ERICA 커리어개발센터는 학생 취업률 80% 목표 달성을 위한 트로이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트로이카 전략은 △학생자기주도 역량계발 △전공별 취업률 밀착 관리 △대학원 진학 활성화를 핵심에 두고 있다. 학생 취업역량 계발을 위한 학생 주도의 전공 특화를 진행하며 목표 관리에 따른 보상과 관리, 석사 진학 사례 공유를 통한 동기부여로 진학 활성화를 도모한다.

전 학년 대상 필수 진로 교과체계 및 4학년 전공별 취업진로세미나 교과목 개설

커리어개발센터는 전 학년 맞춤 단계별 진로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필수 진로 교과목을 플랫폼으로 비교과 프로그램과 전문가 및 전공교수 진로 상담을 연계하고 취업동아리 등 구직기술 및 채용이슈에 대응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의 효용성



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환류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기 진로개발을 유도한다. 이러한 교과체계는 취업 준비에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진출을 눈앞에 두고 본격적인 취업활동을 시작하는 4학년 학생 대상으로는 학과별 학생취업역량을 위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대면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면서 전공 취업진로교수의 밀착 관리를 도모하는 일반강의, 전공별 자율적인 초청 강의, 커리어개발센터 제공의 온라인 녹화강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자율 프로젝트 수행으로 운영되며, 교양필수 교과목을 통해 학과 중심의 취업역량 강화에도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성공 취업을 이끄는 전문가와 선배 멘토의 네트워킹

IC-PBL 커리어 튜터풀을 통한 진로교육의 고도화

IC-PBL 커리어 튜터풀은 전문가 튜터를 통한 직무 맞춤 튜터링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IC-PBL 전문 튜터제는 총 1,307명의 학생 참여, 분야별 산업체 및 커리어 전문가 튜터 41명이 투입되어 학기별로 총 5주간 운영됐다. 전공과 직무 맞춤 튜터링과 컨설팅이 병행 지원되어 학생들의 진로서비스 만족도가 상승하면서 진로 취업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했다. 취업 교과목의 내실화를 제고하고 교과와 비교과 간

참여학생	운영기간	전문가 튜터	IC-PBL진로개발 경진대회
1,307 명	FULL-TIME	41 명	약 400 명 참여
· 2학년 진로탐색과정 교과연계 운영 총 **730명** · 3학년 역량계발과정 교과연계 운영 총 **577명**	· 튜터링 **1회차** 당 **1시간** 할당	· 계열별 **4개 튜터링 존** 운영	· **입상자 장학금** 지급

의 연계를 활성화함으로써 학생 만족도와 시너지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과 중심 환류형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커리어개발센터는 보다 실질적인 취업 성공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지원기업 단계별 밀착 지원 및 현직 선배 멘토링 통합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원기업 전형 단계별 맞춤지원을 위한 현직 동문의 멘토링을 연계하고 성과 도출을 위해 센터와 동문 선배 멘토링을 결합하여 최종합격을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이로써 취업에 성공한 학생은 다음 멘토풀에 합류하여 차후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멘토링에 투입된다. 상반기에 삼성그룹, 코닝정밀소재 기업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면접 컨설팅 및 단계에 맞는 합격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2022년 상반기 삼성그룹 입사 희망자 대상 프로그램 진행 프로세스

삼성그룹 지원희망자 대상 1차 간담회 실시

▼

간담회 참가자 입사지원서&개별 컨설팅 연계

▼

삼성그룹 서류합격자 대상 2차 간담회

▼

참가자 면접 개별 컨설팅 실시

▼

동문 선배 직군 매칭 멘토링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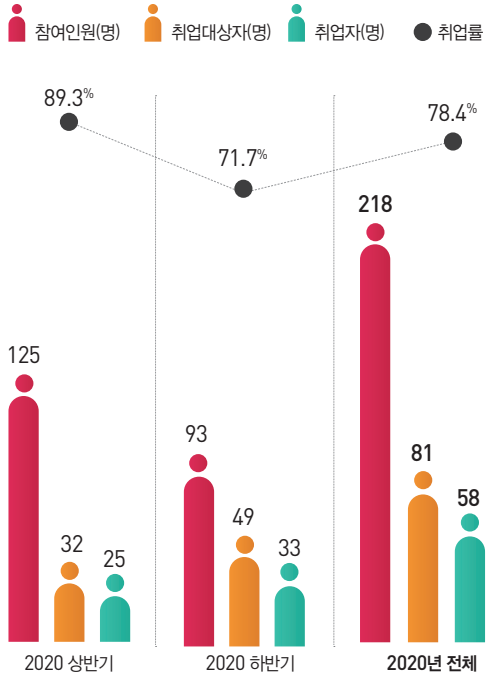
▼

합격자의 차후 멘토풀 합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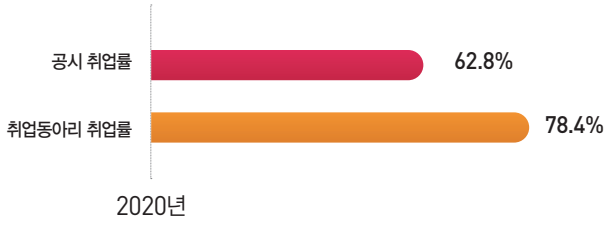
취업동아리 운영을 통한 컨설팅 진행

3,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6개월에 걸쳐 운영하는 취업동아리는 취업전문 컨설턴트가 투입하여 기업 및 직무 분석을 돕고 자기소개서 첨삭, 모의 면접 등 소그룹 형 밀착 지원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직무에 맞춰 소그룹 형 관리를 도모한 결과 2020년 취업동아리 참가 인원의 78.4%가 취업에 성공했으며 이는 공시 취업률보다 15.6% 더 높은 수치였다. 동아리를 통한 재학생 참여와 관리가 높은 수치의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2020년 취업동아리 참가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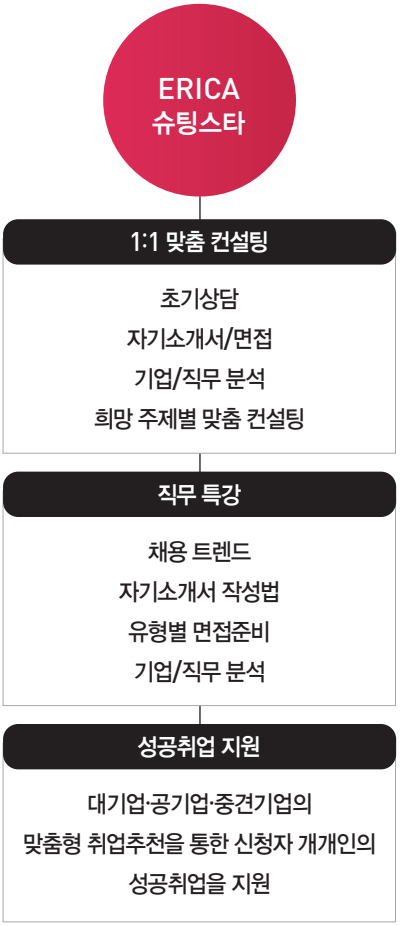
취업동아리 참여학생 취업률





졸업생을 위한 취업 지원 제도 - ERICA 슈팅스타

커리어개발센터는 전 학년 대상 취업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미취업 졸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졸업 후 6개월 동안 취업 전문가와 함께 졸업생을 돕는 온라인/오프라인 동시 1:1 관리를 진행하며 적극적인 맞춤형 취업을 추천하여 지원한다.



청년 취업은 당사자인 대학생들과 대학, 사회적 차원에서 난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커리어개발센터 비교과 프로그램 교육 담당자는 "센터 내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능동적이고 자율성이 강조되는 대학 시스템 내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실질적인 효과를 불러온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동일한 문제를 앞에 두더라도 노력의 정도와 강도에 따라 그 결과는 큰 차이를 불러온다. ERICA 커리어개발센터를 통한 대학 내 다양한 프로그램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합치될 때 성과 이상의 결과와 만족이 뒤따를 것임이 분명하다. HY

학생을 위한 ERICA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빈틈없는 밀착 지원을 펼칩니다.



유제흥(커리어개발센터 전임교원) 교수

Q 취업진로 프로그램에 있어 ERICA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취업을 위해 대학과 민간,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는 이때, ERICA는 ERICA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 교육을 고도화하고 학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가장 큰 경쟁력일 것입니다. 특히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 교양필수 과목을 개설해서 진로 교육의 사각지대를 완전 해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취업 준비에 개별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담과 컨설팅으로 교수와 전문가가 함께 힘을 합쳐 짜임새 있는 밀착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Q 학생들의 참여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취업지원이란 시스템의 구성 못지않게 이용자의 활용이 충분히 이뤄질 때 만족스러운 결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경력개발 장학금을 지급하는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무에 맞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결과물을 학내 구성원들과 공유하여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되면서 영향을 주고받아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합니다.

Q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조언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외부적 상황으로 학생들이 스펙을 쌓을 만한 적극적인 창구가 없었음에도 ERICA 학생들은 자신의 앞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준비해 가고 있어 매우 대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자기만의 독특한 진로를 개발해 나가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43년 ERICA,
동문과 함께 더 큰 미래로 향한다

동문은 곧 대학의 역사다. 대학의 발전 과정 한복판에 있었으며 오늘의 ERICA를 이룬 값진 토양이다.
뿌리가 넓게 퍼져야 더 큰 나무로 자라듯, ERICA의 동문이 탄탄한 기반으로 함께할 때 대학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새롭게 편성될 동문회 구성과 이를 위한 대학의 다양한 지원을 알아본다.

글 이연주 **사진** 위형석



“동문은 곧 대학의 역사다”



ERICA의 네트워킹을 발굴한다

ERICA 내에 조성된 동문회의 수는 학부와 대학원을 통틀어 23곳이다. 전체 50개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지만 동문회가 조직되지 못한 곳이 절반을 웃돈다. 각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영향력을 끼치는 동문의 수가 적지 않은데 그러한 동문들이 ERICA와의 연결성을 가질 수 있는 그룹형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된 상황. ERICA는 대학을 중심으로 네트워킹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현장경험을 갖춘 동문을 통해 산학 협력의 연결고리 형성

ERICA에서 배출되어 각 현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동문의 발굴은 교육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다. IC-PBL의 경우 산학 협력 간의 네트워크를 효율화 하고 현장 수요 맞춤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과제도출을 위해 동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학과 출신 동문을 IAB(Industrial Advisory Board) 위원으로 위촉, 기업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교육과정 개설에 관한 실질적인 자문위원으로서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취·창업 분야에 있어서도 멘토링을 비롯한 경험을 갖춘 동문들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는 상황이다. 산업의 수요와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모색하는 대학으로서 동문은 곧 교육의 자원이다.

동문의 구심점 발굴 및 활성화

동문과의 교류로 대학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처럼 무궁무진하다. 동문의 역할과 필요성을 절감하는 만큼, 대학 역시 동문 결속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침체된 동문회의 활성화를 일으키기 위해 ERICA 역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학과별 동문회 결성 추진위원회 발족

현재 구성된 동문회와의 접촉을 통해 침체된 동문행사를 유도하고, 모교 방문 행사 등 교내에서 진행되는 모임을 독려하여 소모임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학과 단위 뿐만 아니라 학번, 동아리 단위의 소모임 또한 발굴하여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중이다. 이와 같은 학과별 소모임을 활성화하여 동문의 연합체를 구성하고 전체 동문의 결속으로 점진적 확대를 예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학과별 동문회 결성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단과대학별 상황과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목표를 수립할 예정이다. 이러한 현황조사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학과별 동문회 결성을 추진하여 동문 행사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학과별 상황에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동문회 문화의 활성을 일으키고 이후 장기적으로 지속 및 정착을 위해 관리하고자 한다.







동문회 운영을 위한 세밀한 지원 약속

ERICA는 그간 동문 모교방문 행사를 포함하여 학번별 소모임, 온라인 송년회 등을 통해 조직적이고 규모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총장님과 부총장님의 동문회 참석을 통해 동문과의 소통 접점을 마련하고 대학 기념품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교내 행사장 대여 등 각종 소모임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동문회 형성에 필요한 부수적인 관리를 통해 동문 모임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 온 만큼, 향후 지원에 대해서도 원활한 소통과 지원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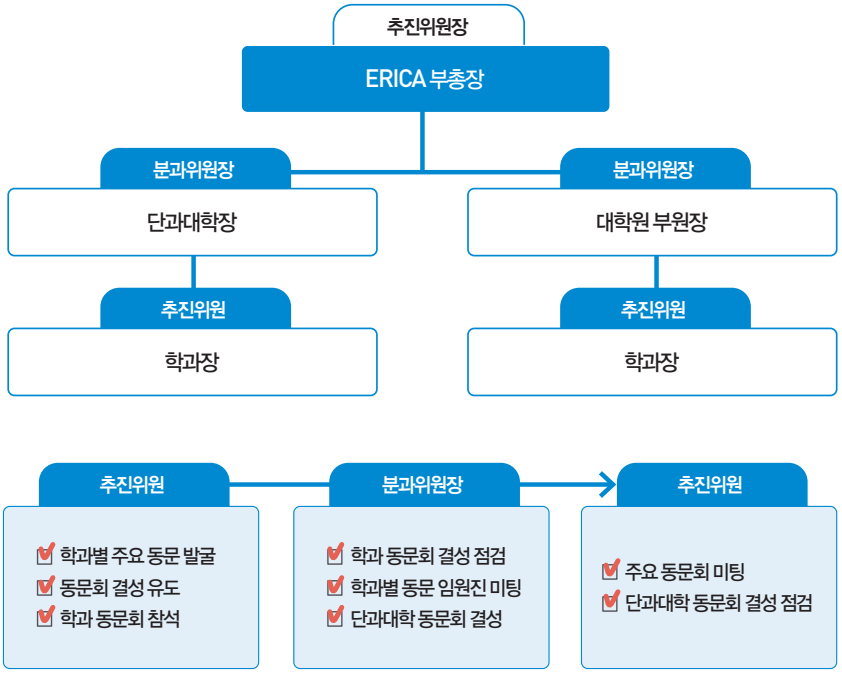
졸업 이후, 동문으로서 대학과 협력적인 네트워킹을 유지하기 위해 동문 스스로에게 대학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성장할 수 있다. 동문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지원 방향을 수립하여 앞으로의 발전을 더욱 견고하게 다질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HY



2021년 11월에 있었던 86동기회 ERICA 가치걷기 행사



학과별 동문회 결성 추진위원회







대학과 동문,
하나된 ERICA를 만들어 갑시다

이상열 기획홍보처장

Q 동문회 결성을 통해 대학과 동문이 어떠한 상호 보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시나요?

동문 여러분께서 후학을 위해 현장 실습, 교육적 아이디어 등을 공급해 주시고, 현장 전문가로서 교과목 개발에 자문으로 동참해주시는 것이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협력이 결국 기업과 동문들에게 선순환으로 작용된다는 점에서 대학과 동문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ERICA의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IC-PBL 수업의 경우, 동문들의 기업체를 통한 현장 문제점을 통해 교육 아이디어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로 진행한 수업은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한 솔루션으로 도출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기업에 직접 적용을 하는 등 수업과 현장 간의 보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장실습지원의 경우 동문의 사업장을 통해 재학생들의 인턴십을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실력과 경험을 갖춘 학생을 통해 동문 기업 내의 구인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동문회 활동을 위한 학교의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동문들에게 모교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내에서 진행되어 왔던 동기회 행사 운영을 토대로 학교 판촉물 지원, 동문회 운영에 필요한 의전을 비롯해 대운동장 등의 학교 시설 대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교 행사인 만큼 총장님, 부총장님과 동문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거리감을 좁히되 모임의 격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에 종사하는 동문과 협업하여 고충을 덜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며 다가갈 예정입니다.

Q 동문 문화 정착을 위한 대학의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동문회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모임을 통해 즐거움을 누리고 또 모이고 싶은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동문 문화 정착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동문회 결성을 학교 주도하에 추진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Top-down방식이 아닌 Bottom-up방식으로 운영 방식이 전환되어 참여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은 효과적인 모임 결성 및 지원을 위해 학과별 현황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자 합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통폐합, 신규 개설 등으로 학과별 상황이 매우 다양해졌기 때문에 학장님과 학과장님들을 통해 여러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을 펼칠 예정입니다.

Q HY ERICA 독자와 대학 동문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ERICA는 정말 눈부신 발전을 해오고 있는 대학입니다. 캠퍼스혁신파크 사업, 강소연구 개발특구 사업을 비롯해 6회 연속 중앙일보 대학평가 10위권 유지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비약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ERICA의 이러한 발전과 성과는 이미 대학계와 현 교육계 종사자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퀀텀점프를 연속하며 현재도 비약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ERICA는 동문 여러분과 보다 더 견고한 결집력을 가지고 성장하려고 합니다. 대학의 역사와 성장의 과정을 함께 해오신 동문 여러분과 자긍심을 공유하며 이후 동문 문화를 널리 확산하고자 합니다. 성장과 혁신을 거듭해 나갈 ERICA의 앞날에 동문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된 ERICA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고라 홍보관,
화합과 공존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다

아고라 홍보관 리뉴얼을 위한 기부 모금 캠페인



ERICA의 정문 아고라 홍보관이 새롭게 탈바꿈했다. 대외적으로는 대학에 대한 역사와 강점을 집대성하고 동시에 구성원 모두의 이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리모델링 되면서 대학의 상징성을 고취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ERICA 재학생의 참여로 이뤄진 기부 모금 캠페인이 밑거름됐다. ERICA 학생들의 참여로 일궈진 창조적인 대학 기부 문화를 알아보고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아고라 홍보관을 소개한다.

글 이연주 **사진** 손초원

대학의 상징성을 제고하고 구성원의 참여 공간으로 재해석

아고라 홍보관은 2009년, 기존의 안산캠퍼스에서 ERICA 캠퍼스로 도약하면서 정문 개선을 목적으로 조성됐다. 아고라 홍보관은 ERICA의 교육으로 인재를 포용하고, 이후 사회로 배출한다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정문 공모전에 선정된 우경국(건축학부) 교수의 설계로 건축된 아고라 홍보관은 상징성에 걸맞은 외관 디자인을 구현했지만 내부 공간의 활용은 간헐적이었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아고라 홍보관의 리뉴얼은 △대학 구성원들과 대학의 강점과 성과 내용을 공유하는 장 △ERICA의 정체성을 함축한 역사 홍보관 △학생 참여 이벤트 공간 조성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했다. 외관의 혁신성에 비해 낮은 공간 활용도를 개선하고 정문이라는 위치적 장점을 활용하여 홍보 겸 학생 자율 활동 공간으로 개방했다.

지난 5월 25일 개관한 아고라 홍보관은 학생들을 위한 오픈스페이스와 소극장 형태의 강의 공간을 마련하여 활용도 제고에 힘을 기울였다. 학교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인테리어의 심미성도 놓치지 않았다. 동선에 따라 벽면에 학교 히스토리 라인을 구성하고, 로비와 지하공간을 미디어 갤러리로 조성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가능케 한다. 4층은 학생들의 오픈스페이스로서 학업과 휴식은 물론 학생 자치적 이벤트 및 자율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게 한다. 대외협력팀 신승국 팀장은 "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내부 콘셉트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며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 아니라 학생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적극적인 교류와 유대가 이뤄지는 문화적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 ERICA 아고라 홍보관 외경
   정문에 위치한 ERICA 아고라 홍보관 외경
2. 미디어 홍보 공간
   3층에 위치한 미디어 홍보 공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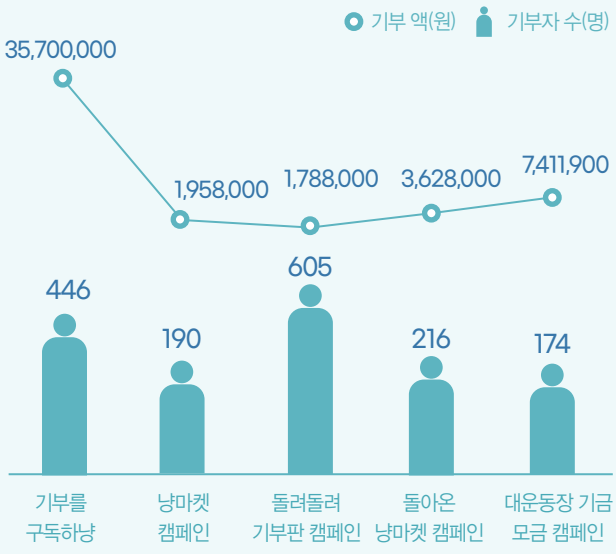
4

학생의 기부 참여 유발 - 유례없는 기부 문화의 혁신

이번 아고라 홍보관 리뉴얼이 이뤄진 것은 홍승호(전자공학부) 명예교수의 발전기금 쾌척과 학생들의 소액 기부문화 참여가 발판이 됐다. 2020년부터 진행된 소액 모금 캠페인은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다양화하고, 자신의 참여가 학교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시적으로 끌어낸다는 점에서 학생의 기부 참여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됐다. 우리 대학의 상징 캐릭터 '하냥이'를 활용해 캐릭터 굿즈를 구독하는 '기부를 구독하냥', 벼룩시장 수익 모금 캠페인 '냥마켓 캠페인', 이벤트 참여 금액을 기부하는 '돌려돌려 기부판 캠페인' 등 재학생 참여 기부 캠페인을 실시했다. 총 5회의 캠페인을 통해 1,631명의 재학생이 참여했고 이러한 기부 이벤트를 통해 50,485,900원의 기부금이 적립됐다.

나눔서포터즈 중심 재학생 참여형 기부 캠페인

총 5회	1,631명	약 5,000만 원
소액 모금 캠페인	총 기부자 수	총 기부액



3. 미디어 갤러리
1층에 조성된 미디어 갤러리는 소극장의 구조로 학생들의 공연과 이벤트, 학과 행사 및 강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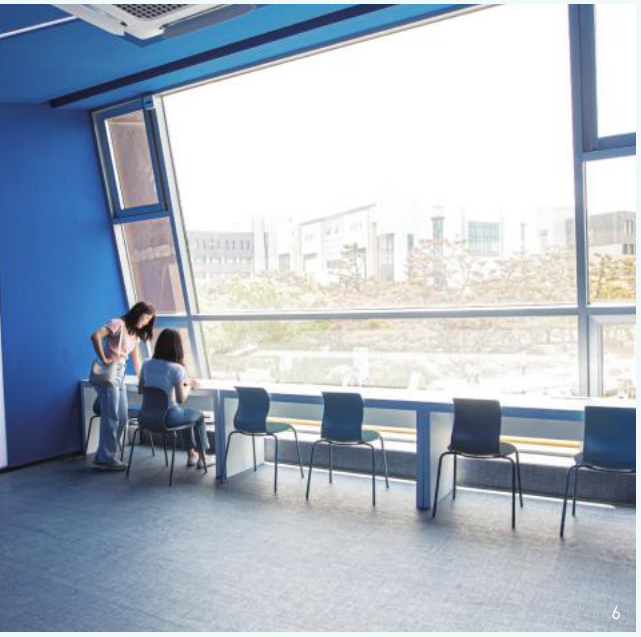
4. 벽면 히스토리 라인
대학의 역사를 이동 동선을 따라 벽면에 구성하여 대학의 역사와 흐름을 시각화했다.

5. 미디어 홍보 공간
대학의 주요 역사와 성과를 영상을 통해 보여주고, 캠퍼스 맵을 통해 외부방문객들의 편이와 학교 위치를 상세히 소개한다.

6. 오픈스페이스
학생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오픈스페이스로 가장 높은 곳에 배치, 통유리를 통해 캠퍼스의 초입이 한 눈에 들어온다.



5


6

지난 3월 ERICA 재학생 775명을 대상으로 한 기부인식 설문조사 결과, 기부 참여 학생의 82%가 위와 같은 소액 모금 캠페인을 통해 참여했고, 그중 기부목적에 대한 응답의 38%는 기부 증서와 굿즈 구매라는 가벼운 동기로부터 참여하게 됐다고 답했다. 그 밖에 개인적 만족이 23%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기부 참여 응답자들의 87%는 캠퍼스에 기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대학 차원의 동기부여가 아닌 굿즈 구매 등의 자발성과 방식의 다각화가 기부에 대한 인식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부금 활용에 대한 응답에서는 교내 인프라 개선에 대한 응답이 38%로 가장 높았다. 이번 기부를 통한 아고라 홍보관 리뉴얼이 학교의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학생들에게 다양하게 활용 · 운영되어 환류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대학의 문화와 역사를 만드는 것은 대학 모든 구성원의 몫이다. 학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 선한 변화를 위한 참여와 행동이 대학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아고라 홍보관 리뉴얼을 위한 ERICA의 학생 참여 소액 모금 캠페인은 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자부심과 열정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HY

아고라 홍보관은 더 좋은 ERICA를 꿈꾸는 구성원 모두의 열린 공간이 될 것입니다.



신승국 팀장 기획홍보처 대외협력팀

아고라 홍보관은 우리 대학의 정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긴 시간 방치되었던 공간이 이번 리뉴얼을 통해 학생들을 위한 창조적인 활동 공간으로, 대외적으로는 대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탈바꿈했고, 이러한 변화에는 재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반이 됐습니다. 대학에서 가장 왕래가 잦은 공간은 단연 정문입니다. 대학 구성원과 외부 방문인 모두에게 대학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라는 인식을 벗고 구성원 누구나 각자의 재기를 활용한 문화 교류의 공간으로 확장되길 기대합니다.

LINC 3.0 사업으로 산·학·연 협력생태계 혁신 강화!

한양대학교 ERICA는 산업과 학교, 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시너지를 창출하는 산·학·연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며 미래 대학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개척해왔다. 남다른 시스템과 우수한 성과로 타 대학의 모범이 돼온 ERICA는 이제 1~2단계 LINC 사업을 넘어 3단계 LINC 사업을 통해 또 한 번의 발돋움을 준비 중이다.

정리 편집실 **사진** LINC+사업단





지속 가능성과 고도화 확대하는 LINC 3.0 사업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코로나19 등 미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산업지형과 일자리 재편 등 경제,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변화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산업계의 혁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학 교육이 필요해졌고, 산 · 학 · 연 협력은 인재양성, 기술혁신 등 국가 경쟁력 제고의 핵심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산 · 학 · 연 협력의 요구에 대학–산업계 상생발전을 지원하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이 추진되었다.

LINC 3.0 사업 추진 내용

추진 기간

2022~2027년

6년, 3+3

대학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3년 지원 후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추진 예산

3,025억 원

사업 유형

유형 1 기술혁신선도형	15교 내외 교당 55억 원 내외, 총 825억 원 한양대 서울캠퍼스 선정
유형2 수요맞춤성장형	50교 내외 교당 40억 원 내외, 총 2,000억 원 한양대 ERICA 선정
유형3 협력기반구축형	10교 내외 교당 20억 원 내외, 총 200억 원

LINC 3.0 사업 통해 새롭게 도약할 ERICA

ERICA는 2004년 HUNIC(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단) 사업부터 시작해 LINC 사업을 거쳐 LINC+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LINC 3.0 사업 선정에도 성공했다. LINC 3.0 사업 선정 대학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최대 6년간(3+3) 지원을 받는다. ERICA는 기존 프로그램을 개선, 고도화하고 학생 및 산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신규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특히 신산업 · 신기술 분야 미래인재 양성과 공유 · 협업 체계 강화를 통한 산 · 학 · 연 협력 혁신 생태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기업이 융합 공생하는 산·학·연 공존 생태계 구축

LINC 3.0단계에서는 기존 HUNIC 사업부터 구축한 산학협력 생태계를 활용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초연결 · 초융합 · 초지능 실현과 고도화를 위해 대학별 창의적 산학협력 모델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대학과 기업, 지역 간의 연결뿐 아니라 산학협력 사례 공유 플랫폼 구축, 진정성과 지속성에 기반을 둔 운영 형태로의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한양대학교 ERICA는 LINC 3.0 사업을 맞아 우리 대학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 기존의 다양한 산학연협력 모델을 고도화하고, 대학과 협약기업이 융합 공생하는 산 · 학 · 연 공존 생태계를 구축하여 LINC 3.0 사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한양대 ERICA 'LINC 3.0 사업'

학생 교육 프로그램 & 기업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

⇩

융합·공생하는 산·학·연 공존 생태계를 구축

2021년까지 진행된 LINC+ 사업 다시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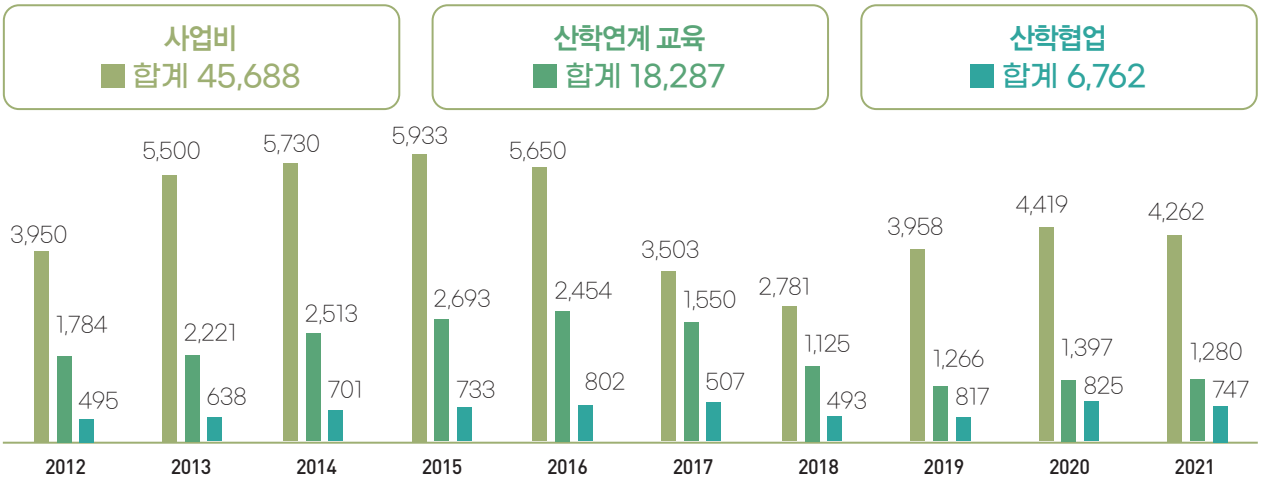
타 정부 사업들은 지속이 어려워 사업을 통해 형성되었던 산학간 협력이 단절되는 것에 비해 LINC 사업은 전체 사업간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지역사회, 산업계, 학계와의 상시적 생태계 구축이 가능했다. 이에 LINC 사업은 시대와 함께 진화해 가며 대학과 기업 간 협력 생태계 구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산학협력 생태계까지 구축된 종합 패키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양대학교 ERICA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연산클러스터 캠퍼스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

단위: 백만 원

LINC 사업의 재정적 지원

LINC 사업 5년간 총 **267.6**억 원 수주

LINC+ 사업 5년간 총 **189.2**억 원 수주





지난 2021년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비롯하여 2년 연속 최다 수상, 최다 응모 대학상을 수상하며 저력을 증명했다.

❶ 학교 재정 및 대학평가 상승에 기여

LINC+ 사업은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ERICA의 학교 재정 및 대학평가 상승에 대해서도 크게 이바지했다. LINC+사업의 지원을 통해 재학생들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창업 경진대회,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대외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포함 굵직한 상을 수상했다. 특히 2021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에서는 국내 72개 대학 1,747팀이 참가한 가운데, ERICA 학생들이 최다 부문에 출전해 대통령상을 비롯한 가장 많은 수상 실적을 뒀다.

재정적 기여를 통한 학생들의 성장을 기반으로 LINC+ 사업은 ERICA의 대학 브랜드 상승에도 기여하였다. ERICA의 중앙일보 대학평가 상위 10위권 진입에는 LINC+ 사업에서 지원하는 창업교육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등이 평가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❷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 구축

LINC+사업은 LINC 1단계에서 수행한 산학협력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력양성, 기업지원과 지역사회 공헌 등을 통해 대학과 산업체 및 지역사회 간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ERICA는 이러한 LINC+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여 매년 20개 이상 학생 창업을 진행하며 기업협업센터(ICC)와 지역협업센터(RCC)를 통해 지역 산업체와 지역사회 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이라는 지역사회 주민 인식 개선에 큰 공헌을 했다. HY

차별화된 전략으로 전문성을 갖춘 산학협력을 도모하겠습니다.



최지웅 LINC사업단장

Q. 이번 3단계 LINC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ERICA의 LINC 3.0은 크게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가집니다. 첫째는 그동안의 인프라를 발판으로 공유와 확산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두번째는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신산업 분야의 실용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별 교수진과 함께 융합하면서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Q. LINC+ 사업과 이번 3단계 LINC의 차별성은 무엇일까요?

기존 LINC+사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단 주도의 운영방식을 학과 주도의 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학과 교수진과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산학협력을 주도하고 모듈 교육과정을 만들어 재직자 교육부터 현장실습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면, 이를 사업단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전환을 통해 보다 더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산업 분야와 사회에 확산하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Q. 지면을 통해 교내 구성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ERICA가 꾸준히 산학협력 사업을 이어 오면서 구성원들 모두가 LINC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RICA 구성원 모두가 산학협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LINC 3.0사업에 참여해주시면 LINC사업단은 여러분을 언제나 지원하겠습니다.



창업의 메카 ERICA
스타트업 학생대표를 만나다

시대와 산업구조의 변화, 목표와 방향설정이 다양해지면서 많은 청년이 창업에 도전하고 있다. 대학과 지역사회 역시 청년 창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양대 ERICA는 창업 준비생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ERICA 창업교육센터 학생기업으로 입주하여 학생 대표로 사업을 꾸려가고 있는 스타트업 청년대표 3인을 만났다.

글 이연주 **사진** 이현구

세 분이 창업을 결심한 이유가 궁금해요.

인혁 저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인지, 아버지의 에너지 넘쳐 보이는 모습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 같아요. 나도 나의 사업을 꾸려야 겠다, 해서 경영학과에 진학했죠. 그런데 경영학 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이 생기면서 ICT를 복수전공했고 2020년 예비창업 패키지를 계기로 창업을 하게 됐어요.

지윤 저는 서비스 이용자 입장이었다가 문득 나도 이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겨서 창업교육센터 비교과강의, 교과 강의를 수강했었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제가 꿈꾸는 가치도 전달할 수 있겠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도전해 보자, 하는 생각에 창업 준비를 계속하게 됐죠.

진영 처음에는 아이언맨 수트 같은 웨어러블 로봇을 하고 싶었거든요.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연구실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논문을 몇 개 쓰면 연구실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몇 살쯤 될까요?' 그랬더니 '한 빨라야 마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수님' 그랬더니 '창업을 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로 하려면 창업을 해야 되는 건가 하고 스타트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창업을 시작하면서 본인의 아이템에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지윤 저희 서비스는 창업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요. 채용관련 정보는 많아도 이런 창업 관련 콘텐츠 플랫폼은 부족하다고 판단했거든요. 창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개개인의 관심사를 창업 역량으로 연결해 주면서 실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끝까지 도와주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도움을 준다는 게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영 저희 오토노미아의 아이템은 임무 특허형 소방드론 돌핀이라고 부르거든요. 쉽게 말해서, 드론이 떠서 소방관 보다 빠르게 스캔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장착된 소화탄으로 초기진압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세계적으로 이런 시스템은 없는 상태예요. 시작은 화재진압 소방임무 특화드론으로 시작했지만, 향후 다양한 산업군에 맞춰 적용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각 분야에 맞게 플랫폼화 하여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왼쪽부터) 정지윤, 김진영, 최인혁 학생이 창업교육센터 라운지에서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인혁 코로나19로 성인 우울증도 늘었지만, 아동 우울증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 비해 전문 상담사를 통해 치료에 적극적인 문화가 만들어진 편인데요. 아동의 경우는 상담에서 라포(유대감) 형성이 어려운 편이에요. 저희는 아동 심리상담에서 라포 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비대면 상담에서 AR기술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 서비스거든요. 상담 과정의 어려움을 저희 AR서비스로 극복시키는 것이 경쟁력인 것 같아요.



아이템에 대한 확신과 가치가 있어 창업을 결심하게 되셨는데, 창업 전후를 비교할 때 스스로에게 있었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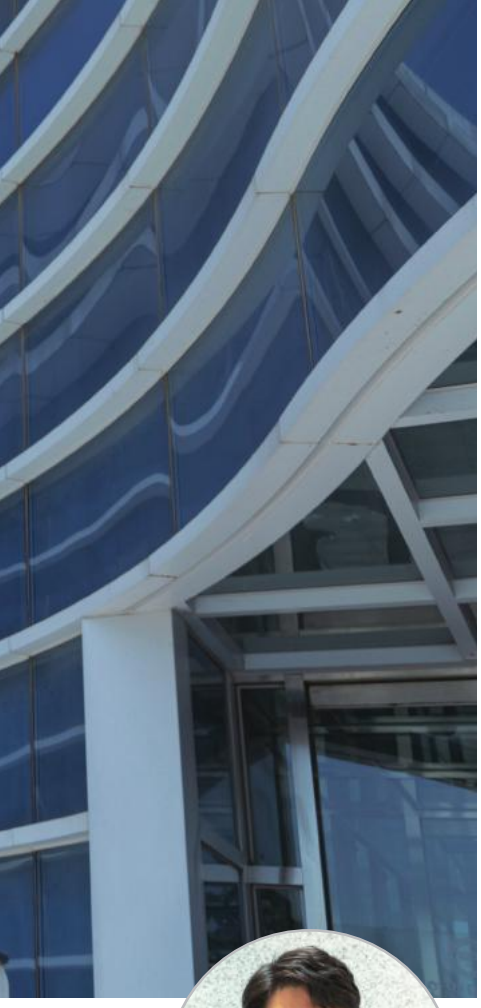
진영 일단, 대표라는 자리가 생각보다 많은 걸 내려놔야 되겠더라고요. 무거운 왕관을 쥐려면 그만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팀원들이 비전을 함께 하고 있는 식구잖아요. 대표가 책임을 져서 먹여 살려야죠. 그래서 자다 가도 새벽에 전화 오면 받고 또 일을 하고… 가끔씩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너는 나이가 23살같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지윤 제일 많이 달라진 건 시각인 것 같아요. 룰루랄라 대학생이었다가 뭔가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창업하면 네트워킹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다양한 전공의 친구들을 만나고 또 투자자분들이나 교수님 등 자문을 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통해 시야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인혁 두분 얘기에 공감 가는 부분이 많네요. 매출에 대한 고민도 많고, 책임감도 느껴지고요. 두분 생각에 덧붙이자면 저는 처음에 대표로서 소통의 방식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조금 더 유연해진 점이 큰 변화가 아니었나 싶고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저런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씩 터득해서 변하는 것 같아요.



콘텐츠 깎는 청년
최인혁 대표(경영학부 11)
- 아동심리 상담 AR 콘텐츠 제작
- 하이퍼 캐주얼 장르 모바일 게임 제작





오토노미아
김진영 대표(로봇공학과 19)
- 돌핀 시스템(AI 자율주행 드론/열추적 유도 소화탄) 개발



헤딩웜
정지윤 대표(경영학부 19)
- 커리어 네비게이션 취창업 통합 포털사이트 운영
- 으샤(Usha-community) 실전 창업 커뮤니티 운영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져요. 그럼에도 하길 잘했다 싶은 순간이 있으셨을 거 같아요.

진영 최근 들어서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산림청 산하에 산림항공본부가 있는데요. 소방 드론의 문제점이 있으니 신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하면서 오토노미아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덕분에 팀원들의 사기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우리 아이템이 좋은 변화를 불러온다는 생각이 들때마다 창업하길 잘했다 싶죠.

인혁 기본적으로는 다 비슷하실 것 같은 게 진영 대표님이 말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피드백이 왔을 때, 노력에 따른 성과가 나타날 때가 제일 기쁜 것 같아요. 여기에 덧붙여서, 저희 팀은 2년 가까이 함께 일하고 있거든요. 모두 ERICA 출신 멤버고요. 같이 일하는 우리 팀원들이 회사를 좋아해주고, 목표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 느껴질 때, 저에 대한 믿음을 보여줄 때, 창업하길 잘했다고 느끼는 거 같아요.

지윤 저도 비슷한 거 같아요. 팀 내부에서는 어떤 프로젝트 앱 개발 등이 실제로 론칭이 됐을 때 내부적으로 끈끈해지더라고요.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실제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으면 반응들이 오잖아요. 저희도 유저들에게 진심으로 대했고 이용자 분들도 즐거워하실 때, 우리의 가치가 조금이나마 전달됐다는 걸 깨달을 때는 정말 뿌듯하고 감격스럽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길 때 창업만이 주는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만약 진짜 친한 친구가 창업을 고민중이다' 당신이라면 추천할 건가요?

지윤 저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창업이 단순히 좋아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힘든 일이니까….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추천할 것 같아요. 커리어라는 게 옛날에는 그냥 돈벌이, 경제활동의 수단이었겠지만 이제는 자아 실현의 수단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에서 사회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가치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창업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진영 저는 실제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마다 하는 소리가 있어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창업을 하는 거면 해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히 돈이 벌고 싶은 거라면 잘 생각해 봐라.' 모든 창업가가 자기 사업에 목숨 걸고 매달리고 있어요. 사업에서 내가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인혁 저는 무조건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정년도 짧아지고 있고 1인 기업 같이 사업 구성원 규모가 작아지고 있잖아요. 하나의 추세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회가 있을 때 해보는 게 길게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특히 ERICA의 지원도 너무 좋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줄 때 도전하는 건 좋다고 봐요. 다만, 시작 전에 백업 플랜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망하면 끝, 이러면 안 되니까요. HY



얇지만 저항 낮은 차세대 반도체 배선 소재 개발

안지훈(재료화학공학과) 교수 · 하민지 연구원

재료화학공학과 안지훈 교수팀이 소부장 기업인 (주)아이켐스와 함께 산학 공동연구로 저항이 매우 낮아 차세대 반도체 배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와 '몰리브데넘카바이드' 극박막 공정을 개발했다. 이를 반도체 배선에 적용할 경우 초미세화된 반도체 소자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 박영임 **사진** 이현구

산학 공동연구의 좋은 예

5nm, 3nm, 2nm…. 최근 반도체는 고집적 · 초미세화를 향해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반도체가 작아지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재료들도 같이 작아져야 한다는 것. 예를 들면, 배선의 두께도 얇아져야 하는데 그러면 저항이 급속히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두께는 얇아도 저항이 낮은 새로운 배선 소재를 개발해야 한다. 이에 안지훈 교수 연구팀은 저항이 매우 낮아 차세대 반도체 배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와 그 공정을 발표해 재료화학 분야의 국제 저명 학술지인 〈케미스트리 오브 머티리얼스(Chemistry of Materials, IF=9.811)〉 3월호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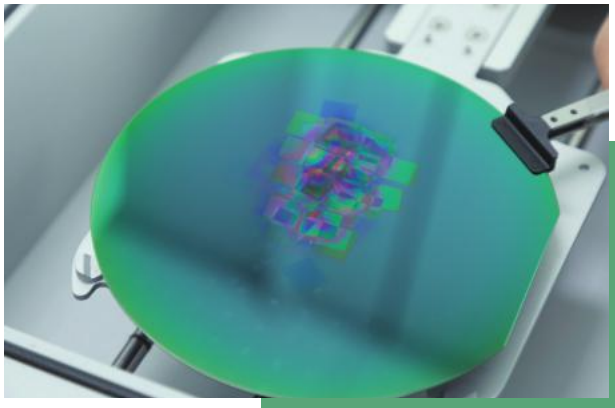
"기존 반도체 배선 소재로 많이 사용되는 구리나 텅스텐은 반도체 미세화와 선폭 감소에 따라 전기전도 능력이 급격히 감소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배선 소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몰리브데넘(molybdenum) 또는 몰리브데넘 화합물은 낮은 저항과 열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해 차세대 반도체 배선 소재로 주목받고 있죠."

하지만 몰리브데넘 화합물을 얇게 증착할 수 있는 전구체가 없어 양산화에 어려움이 따랐다. 그러던 2년 전 어느 날 안지훈 교수는 박사 과정 시절부터 전구체 원료를 구매하며 친분을 쌓아왔던 아이켐스의 김현창 대표와 새로운 전구체 소재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몰리브데넘 전구체를 함께 개발해 보기로 뜻을 모았다. 그렇게 시작된 산학 공동연구로 아이켐스는 몰리브데넘 금속–유기 전구체를 개발하고, 안지훈 교수 연구팀은 이를 활용해 몰리브데넘 또는 몰리브데넘 화합물을 증착하기 위한 원자층증착법 공정을 개발, 저저항 박막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해당 연구성과는 국내 중소기업인 아이켐스와 저희 연구실의 긴밀한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산학 공동연구의 좋은 사례라 생각합니다. 산학 공동연구의 장점은 산업체가 가지고 있는 산업적 지식에 연구실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연구를 더해 상호 보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얇아도 낮은 저항 구현에 성공

원자층증착법 공정을 이용한 반도체 배선 소재의 전구체 개발은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아 성공 사례를 찾기 어렵다. 그렇기에 반도체 양산에 유리한 액체상의 몰리브데넘 전구체를 사용해 원자층증착법 공정을 개발하고, 이러한 공정으로 두께가 얇아도 낮은 저항을 유지하는 배선 소재를 구현해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본 논문의 제1저자인 하민지 연구원은 본 연구의 저항값은 10nm 이하 소자에서 보고된 금속 후보 물질 중 가장 낮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매우 얇



몰리브데넘카바이드 극막 공정을 반도체 배선에 적용할 경우 초미세 반도체 소자의 성능을 향상시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은 두께임에도 이렇게 초저 저항을 유지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일까.

"전자가 부딪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거리인 평균자유행로(electron mean free path)가 짧은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형성된 박막의 두께가 평균자유행로보다 클 경우, 물질의 두께로 인한 전자 흐름의 제약이 적죠. 쉽게 설명하자면 공이 굴러갈 수 있는 거리가 장애물까지의 거리보다 짧아 장애물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입니다."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증착 직후 아무런 후속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의 몰리브데넘카바이드 박막이 8~20μΩ · cm의 초저 저항을 4.25nm의 얇은 두께와 600도의 열처리 후에도 유지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몰리브데넘카바이드 박막을 반도체 배선에 적용할 경우 초미세화된 반도체 소자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현재 10nm 정도인 확산 방지막(diffusion barrier)의 부피비도 줄일 수 있다.

"원자층증착법 공정 개발 연구는 아직 활성화돼 있지 않은 분야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원자층증착법 공정과 몰리브데넘 전구체 기술은 향후 반도체 소자에 필요한 다양한 금속 박막의 증착 공정을 개발하는 기반기술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원천특허를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기여

안지훈 교수가 이끄는 '나노소재 및 소자연구실(NAND)'은 반도체 소자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성 소재를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도성 박막에 대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게다가 하민지 연구원이 석박사 통합과정에 들어와 처음으로 맡은 연구과제였다. 그렇기에 안지훈 교수와 하민지 연구원은 다른 연구들에 비해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논의와 실험을 거듭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며 완성된 논문이 저명한 국제 학술지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으니 성취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안지훈 교수는 제1저자로서 지난 2년간 열정을 쏟아 온 하민지 연구원에게 영광을 돌렸다.

"열심히 연구한 결과를 우수 학술지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연구원들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하민지 연구원에게 자신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몰리브데넘카바이드는 시스템 반도체의 게이트 전극막에도 활용할 수 있어 특히 배선의 저항이 중요한 시스템 반도체에서 그 중요성 및 활용도가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에너지 분야 등 점차 확대되고 있는 원자층증착법 기반의 전자 소자 개발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 안지훈 교수는 연구실에서 도출된 연구결과가 논문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실 본 연구에서처럼 아무리 우수한 소재와 공정을 개발해도 이를 양산 소자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반도체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로서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소재와 공정이 실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과 같은 메모리 소자업체에 적용돼 제품화로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HY

재료화학공학과 '나노소재 및 소자연구실(NAND)'은?

반도체 소자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좋은 특성의 반도체 소재와 절연막, 그리고 낮은 저항의 배선 소재가 필요하다. NAND 연구실의 목표는 이러한 차세대 반도체에 사용되는 소재들이 매우 얇은 두께에서도 우수한 특성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원자층증착법'이라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2차원 반도체 소재, 정보를 저장하는 소재 등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뇌를 모사하는 뉴로모픽 소자에 적용하는 연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기반으로 **융합하고 확장한다**

해양음향공학연구실

연구자가 추구하는 제일의 가치는 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산업의 진보를 견인하는 일이다. 수중음향의 기술을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무한한 발전을 이끄는 ERICA 해양음향공학연구실은 지금도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회에 적용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며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글 이연주 **사진** 손초원



다양한 연구 경험이 남다른 기술력을 기른다

최지웅 교수가 이끄는 해양음향공학연구실에는 가로, 세로 5m에 수심 5m에 달하는 대형 수조가 자리해 있다. 일반적인 연구실과는 스케일부터 남다른 구조와 시설물. 이 모든 것은 현장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중음향 실험 장비다. 해양음향공학연구실은 이론으로는 채울 수 없는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학생 개별의 연구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우리 연구실은 대학 단일 연구팀으로는 유일하게 수중음향 실험을 위한 수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독자적인 해상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죠. 이러한 환경 덕분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어 학업과 연구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실의 양원준(해양융합과학과 석박사통합과정, 20) 학생이 해양음향공학연구실로 진학하게 된 계기는 평소 관심이 있었던 방위산업 분야에서 활발한 응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민수분야 등 타 분야에서도 무한한 응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낀 것에서 비롯됐다. 학부 입학 시절만 해도 해양융합공학과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강의를 들을수록 수중에서 음파를 이용한 기술의 활용을 알게 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의욕을 불러왔다고 한다. 양원준 학생은 연구와 실험에 다양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하는 연구실의 분위기가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양음향공학연구실은

수중통신 및 수중 표적 탐지 등의 감시체계 연구, 수중 무기체계 성능모의 및 예측과 같은 첨단 방위산업 분야의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해상풍력단지나 선박의 소음 측정, 지진해일 조기 탐지 시스템 개발, 해저에 침적된 위험 유해 물질 음향탐지 등과 같은 민간 분야에서의 연구를 수행한다.

해양음향공학연구실 졸업생 진출 현황

- 석사 57명 / 박사 29명 배출
- 주요 진출 기업 및 연구소 :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대우조선해양, STX엔진, 국방과학연구소, 기상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수산과학원, 극지연구소
- 대한민국 해군 : 교수요원 1명, 항공 10명, 정보 12명, 항해 10명, 정보통신 2명 진출

수상 및 선정

- 제1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건강한 연구실” 선정(2020.0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선정(2020.10~2022.10)





동문이 말하는 해양음향공학연구실

전문적이고 융합적인 체계가 현장에서의 창의성으로 발휘됩니다.

㈜LIG넥스원 지능형소프트웨어연구소장 **윤관섭** 박사

방위산업체는 모든 분야에서 융복합 지식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해양융합공학과 해양음향공학연구실의 Interdisciplinary 한 교과 제도와 교육 방식은 수중음향을 전공한 제가 지능형SW연구소를 맡게 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접할 때 언제나 능동적이며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해양음향공학연구실의 전문적이면서 융합적인 체계 때문이라고 자부합니다. 저희 조직은 미래의 전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미래 기술을 연구하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산학 협력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한양대학교 ERICA 재학생 여러분들께서도 학교의 우수한 산학연계교육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로 성장하시기를 기대하며, 특히 한국 방위산업 선두기업인 LIG넥스원에서 저와 함께 국가 방위산업의 역군이 될 훌륭한 후배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지웅 교수님을 비롯한 연구실 학생들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불러오는데요. 특히 배우고 싶다, 실험하고 싶다는 저희들의 요구에 언제나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시는 것이 연구실에서 가장 만족스럽고 자랑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양음향공학연구실은 실무교육과 현장교육, 실용교육을 기반으로 한 연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첨단해양 관측장비를 활용한 실용적인 교육에 더하여, 해양연구선에 승선하여 직접 해양 실습을 진행하는 등 현장 경험을 강화한다. 이뿐 아니라 산업체와 연구소 등의 현장 전문가 참여 교육을 통해 실무에 필요한 기술과 실력을 갖출 수 있어 학연산의 연계 교육이 실행된다. 대한민국 해군과 국내 대표 방위산업체, 민간기업체와 더불어 국방과학연구소와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다양한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연구의 폭을 넓히고 학생에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융합을 통해 커지는 연구 가능성

해군 장교로 복무 중인 정문철(해양융합과학과 석사과정, 21) 학생은 군 위탁교육이 계기가 되어 ERICA 해양융합과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해군에게 있어 수중음향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목이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해군에서는 대잠수함작전을 위해 유능한 해군 장교를 대상으로 대학원과정의 위탁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35명의 해군 장교가 해양음향공학연구실을 거쳐 갔고, 현재 두 명의 해군 장교가 재학 중이다. 정문철 학생은 위탁교육을 계기로 재학하면서 수중음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 시야를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수중음향은 여러 분야로 확장하고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인공지능을 수중음향과 접목하려고 합니다. 군 내부에서도 수중음향 분야는 필수 분야로서 지속 연구되고 있지만 인공지능

에 대한 연구는 현재 미비한 편이기 때문에 이 둘을 융합하여 선제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앞으로 군의 중장기적 계획으로 접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양음향공학연구실은 실제로 다양하게 연구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표적추적 및 제어 분야의 권위자인 송택렬(전자공학과) 명예교수를 초빙하여 잠수함 탐지 및 추적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중음향을 활용한 지진파 및 핵실험 모니터링, 드론 탐지 기술 등과 같은 군사적 분야 및 해양 신재생에너지/해양오염 모니터링 기술 개발 등 민간 분야에도 연구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융합 연구 및 다양한 영역에서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실을 거쳐 간 졸업생들은 여러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창의성을 강조하는 연구실의 교육 철학과도 맞물려 있다.

"졸업생들은 해양음향공학연구실에서 배웠던 수중음향을 기반으로 현재 다양한 첨단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넓은 안목을 키운 뒤 사회에 진출했기 때문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융합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로서 활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꾸준한 고민을 요구한다는 최지웅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융합과 협업은 필수임을 강조한다. 학연산의 연계를 통한 꽉 찬 교육, 하나의 학문에 고이지 않고 다양한 분야와 접목하며 확장하는 일들이 결국 미래 차후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 원천이 될 것이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연구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해양음향공학연구실의 무한한 발전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HY

심도 있는 고민과 공부가 자신만의 영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정문철(해양융합과학과 석사과정, 21) 학생

해양분야 수업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포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학부생들은 심도 있는 고민을 하지 않고 자신이 관심있는 과목들만 골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한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할 시점에 본인이 뭘 공부했고, 뭐가 남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학부생 때부터 자신이 나아갈 길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향후 자기의 영역을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필요하다면, 깊이 있는 공부를 위해 대학원 진학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ERICA는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산학연계 프로그램과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연구실들이 있습니다.

경쟁력을 갖추기위해서 다양한 경험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양원준(해양융합과학과 석박사통합과정, 20) 학생

취직이 어려운 요즘 대안으로 대학원을 선택하는 건 반대지만 수중음향을 공부하는 게 재미있다고 느낀다면 연구실에서 공부하는 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수중음향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고 교수님께서도 연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기 때문에 전문성을 탄탄히 갖추고 다양한 실험과 연구 경험을 쌓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선배가 방산업체나 연구소 등에서 다양하게 활약하고 계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저 역시도 최지웅 교수님처럼 수중음향을 깊이 연구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훌륭한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세계를 사로잡은 'K-콘텐츠' 스토리텔링 전략 전격 해부

문화콘텐츠학과《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스토리텔링 전략》발간

'킹덤',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문화콘텐츠학 교육의 원조, ERICA 문화콘텐츠학과가 7편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드라마의 스토리텔링 전략을 분석한 단행본을 출간해 관심을 모았다. 이번 단행본은 TVING과 진행한 IC-PBL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프로젝트 결과물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글 박영임 **사진** 이현구



단행본 저자가 된 학생들

전 세계적으로 K-좀비를 알린 '킹덤 시리즈'는 한국드라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서막에 불과했다. 한국 대중문화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오징어게임'은 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등을 휩쓸며 월드 클래스 수준의 신드롬을 일으켰다. 이렇게 K-콘텐츠를 전 세계인들과 함께 즐길 수 있게 된 것은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된 덕분이다. 문화콘텐츠학과 박기수 교수는 콘텐츠 시장의 주 무대가 OTT플랫폼 서비스로 옮겨가면서 그에 맞는 스토리텔링 전략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2021년 2학기에 개설된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분석 전략' 강의를 TVING과 함께 IC-PBL M 유형으로 진행하며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드라마의 스토리텔링 전략을 분석했다.

"오징어게임은 우리가 어린시절에 즐겼던 놀이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계급적 모순, 자본의 횡포 등을 자연스럽게 녹여 세계인들의 공감을 얻었다는 평가 정도는 이미 많은 매체에서 보도된 수준이죠.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분석 전략 수업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시간 구조, 캐릭터, 시/공간적 배경, 시점, 상호텍스트성 등 각 요소들이 전체 서사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객관적인 분석틀에 의거해 면밀히 분석하여, 스토리텔링 관점에서 그것의 경쟁력을 분석한 것입니다."

문화콘텐츠학과는 이렇게 수업 시간에 분석한 콘텐츠 스토리텔링 전략을 단순히 보고서로 끝내지 않았다. 지난 2월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스토리텔링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단행본을 출간한 것. 사실 2019년에 동일한 강의의 수업 성과를 《미스터 션샤인 스토리텔링 전략》이라는 단행본으로 발행





덕력을 높이며 즐거움이 실력이 되는 곳

박기수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OTT 플랫폼이 일상에 자리 잡음으로써 문화콘텐츠의 폭발적인 위력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우리 학과는 소위 '덕력'과 '똘기'라고 하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집중력을 가진 학생들을 환영하며, 그러한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내는 곳입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문화콘텐츠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ERICA 문화콘텐츠학과에서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한 적이 있으니 이번이 벌써 두 번째 출판물이다.

"본 수업은 학생들에게 매우 학습 강도가 높은 수업입니다. 어렵게 공부한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단행본 출판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자부심이자, 좋은 커리어가 될 수 있죠. 출판사에서 300부를 인쇄하여 학생들과 업계 관계자 분들에게 배포하였고, 시중에는 전자책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데 인쇄본을 구할 수 없냐는 업계 관계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세계인 사로잡은 스토리텔링 성공 전략은?

본 단행본은 지난해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분석 전략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킹덤, 오징어게임, 스위트홈, 마이네임 등 화제를 모았던 7편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드라마의 스토리텔링 전략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엮은 것이다. 수업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이 책의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한 학기 동안 탐구한 애용이 휘발되지 않고, 의미있는 성과물로 남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일반 강의와 달리 현장으로부터 문제 시나리오를 제공받고, 강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탐구하고 현장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는 IC-PBL M유형으로 진행 된 본 강의는 TVING과 함께 진행했는데, TVING이 제시한 문제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드라마의 스토리텔링 전략이란 무엇인가'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6명이 한 팀을 이뤄 각각 한 편의 드라마를 선정한 후 한 학기동안 스토리텔링 전략을 낱낱이 밝혔다. 단행본 저자 중 한 명인 이지혜 학생(문화콘텐츠학과 19)은 "집중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한 달 반 동안 팀원들을 무려 23번이나 만났다"며 "함께 밤을 새우고 새벽에 헤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기수 교수는 그러한 산고 끝에 탄생했기에 본 단행본은 넷플릭스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에게 완성도가 높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성과 현장성이 생명인 문화콘텐츠학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현재 가장 화제를 모으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드라마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책은 학생들이 주체적으





책으로 남아 보람 충만

이지혜 학생(문화콘텐츠학과 19)

열심히 작업한 보고서가 책으로 발간돼 영광입니다. 보통 힘들게 과제를 마쳐도 휘발되기 마련인데 책으로 남으니 더 보람되네요. 스토리텔링 분석이나 전략이라 하면 막연하고 추상적이었는데 수업과 단행본 발행을 통해 타임라인, 캐릭터, 배경 등 객관적인 분석툴로 스토리텔링 전략을 분석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콘텐츠 산업에 한발 다가서다

홍지현 학생(문화콘텐츠학과 20)

'오징어게임' 분석을 맡았는데 드라마의 인기가 너무 높아 부담이 좀 됐습니다. 하지만 콘텐츠 산업의 중심에 있는 OTT 서비스의 작품을 면밀히 분석하며 산업에 조금 더 다가선 기분이었습니다.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분석 전략 수업처럼 현장의 문제해결 과정에 투입돼 성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문화콘텐츠학과의 장점입니다.

로 작업했다는 점, 처음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드라마의 스토리텔링 전략을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올해는 메타버스 스토리텔링 구현 전략이라는 책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고 문화콘텐츠학과의 전통을 잇다

문화콘텐츠학과가 이렇게 스토리텔링 전략을 분석해 책으로 발간할 수 있었던 것은 2004년 국내 최초의 문화콘텐츠학과로 설립된 이래 불모지나 다름없던 스토리텔링 분석방법론의 기틀을 탄탄히 다져온 덕분이다. 그리고 매년 외부 지원사업을 수주했는데 본 단행본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1년 콘텐츠 원캠퍼스사업'의 지원을 받아 발행된 것이다. 문화콘텐츠학과는 그동안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영상실습실, 문화콘텐츠 아카이브, 문화콘텐츠 크리에이터 센터와 최신 기자재 등을 구축해 최상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최고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기수 교수는 문화콘텐츠학과의 자랑거리는 이뿐 만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문화콘텐츠학과는 국내에서 최초로 학과를 만들고, 학부를 기반으로 일반대학원, 융합산업대학원의 풀라인업을 구축하여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특히 문화콘텐츠 기획-마케팅을 바탕으로 융복합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산학협력 기반의 현장중심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120여 개의 협력업체와 강의-현장실습-공동 R&D의 산학협력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하여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문화콘텐츠학과는 지원 경쟁률이나 입학 성적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할 뿐 아니라, 교내 학과 평가에서도 1등을 놓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는 문화콘텐츠학과. IC-PBL 전면화와 학생 진로에 맞게 최적화된 커리큘럼을 자기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모듈형 커리큘럼 도입을 준비하는 한편, 메타버스 및 플랫폼 비즈니스 등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를 발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커리큘럼을 개편할 계획이다. 그렇기에 국내 최고의 문화콘텐츠학과라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HY



2년 만의 다시, 축제 거리두기 대신 '곁에 두기'

ERICA 봄 축제 'READY HANYANG ACTION'



따가운 햇볕, 선선한 바람이 교차하고 하늘 마저 완벽했던 5월, ERICA 봄 축제가 열렸다.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일상 속 긴장을 잠시 내려놓고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젊음을 꽃피운다. 푸르른 캠퍼스에서 청춘의 아름다움으로 수놓인 시간은 거리두기로 인한 지난 2년의 공백을 무색하게 할 만큼 찬란한 나날이었다. 홍보대사 사랑한대 17기 학생들과 ERICA 축제의 한 복판으로 찾아가 보자.

글 이연주 **사진** 이현구, 대외협력팀 제공 **모델** 사랑한대 17기





2



3

볼거리, 놀 거리, 즐길 거리로 가득했던 캠퍼스는
ERICA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축제의 장이었다.
캠퍼스는 학생들에게 피크닉 공간이자 다양한 문화 체험존이었고
자신의 감춰왔던 재능을 선보이는 열린 무대이기도 했다.
ERICA 학생에 의한,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캠퍼스는 곧 문화 콘텐츠가 되어 학생들과 어우러졌다.





1. 재치있는 문구의 플랜카드가 캠퍼스 곳곳을 채웠다.
2.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된 플리마켓은 보는 재미를 더했다.
3. 소소한 볼거리와 놀거리가 학생들의 발걸음을 붙든다.
4. 여러 종류의 푸드트럭이 학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어둠이 내려앉은 캠퍼스에 청춘의 빛처럼 찬란하고 화려한
조명이 수 놓으며 긴 밤을 밝혔다.
각자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
공연에 맞춰 발을 구르며 하나된 문화를 만끽한다.
누군가에겐 처음이었을, 다른 누군가에겐 오래도록 잊지 못할
축제는 청춘의 열정 그 자체였다.


5


6



7





5. ERICA인의 함성과 열기가 호수공원 무대를 가득 채웠다.
6. 휴대폰 손전등을 밝혀 어두운 캠퍼스를 밝힌다.
7. 인기 뮤지션들이 멋진 무대로 ERICA인의 열정에 응답했다.
8. 공연을 즐기며 짧은 축제를 만끽하는 ERICA의 청춘들



진정한 변화를 불러오는 교육의 가치를 실현한다

IEEP사업단장 이선영(재료화학공학과) 교수

교육의 결과는 하루 아침에 나타나지 않는다. 끊임없는 관심은 물론이고, 필요한 자원이 든든히 뒷받침될 때 그 효과는 배가된다. ERICA IEEP (Innovative Energy Education Program) 사업단은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의 주관대학으로 탄자니아 아루샤 시에 우리의 기술력을 배양하고 있다. 본 사업의 책임자로서 공학교육 봉사를 견인하고 있는 이선영 교수를 만나 사업단의 활동이 지닌 에너지와 파급력을 확인했다.

글 이연주 **사진** 이현구

탄자니아의 미래를 위해 교육과 기술을 심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도하는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은 국내 대학이 가진 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수요에 맞게 개발 협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2020년 해당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한양대 ERICA IEEP 사업단은 서울대학교와 현지 NGO 기관인 E3empower와 함께 탄자니아 아루샤공과대학 기계공학과에 메카트로닉스와 재료공학 학사 학위 과정을 설치했다. 교과 과정 개설을 비롯해 에너지 산업 및 안정적인 전력 보급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을 주도하며 부단히도 바쁜 2년을 보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11월부터 탄지니아 교육 인증원의 공식승인을 받아 34명의 학생과 함께 첫 학기를 시작했고 올해 3월에 두번째 학기가 운영 중이다.

"탄자니아는 전력이 부족해서 수업이 갑자기 취소될 때도 있고, 인터넷 통신망이 불안정한 상황이예요. 심지어 교과서를 따로 소장하기도 어려워서 도서관에서 대출을 해서 봐야할 만큼 교육 여건이 열악했습니다. 특히 메카트로닉스와 재료공학 중, 재료공학분야는 탄자니아에서 처음으로 학사과정이 개설됐어요. 탄자니아에 딱 한 곳, 그 마저도 대학원 과정이 전부였죠. 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우리가 가진 재료공학 교육 과정을 온라인 수업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IEEP 사업단은 현지 상황을 바탕으로 아루샤 지역에 작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물 펌프와 태양전기를 활용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로 단기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인프라가 마련된 후 현지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 발전시키기 위해 탄자니아 내 전문 엔지니어를 발굴하는 과제가 뒤따른다. 이를 위해 현지 대학 교원과 학생에게 한양대와 서울대에서 석박사 학위 과정을



제공해 본국에서 교원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궁극적인 역량강화를 장기 목표로 수립했다. 현지 학생들은 이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태양광 원리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는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게 됐다. 재료공학 뿐만 아니라 메카트로닉스 과정 또한 현지 내에선 유일무이한 교육. 탄자니아 국가적 차원에서 재생에너지에 관한 개발 계획이 있는 만큼, 자국 내에 전문 엔지니어를 배출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코로나19로 현지 방문은 어려웠지만 수업을 촬영해서 일주일에 두번씩 보내면서 온라인으로 한 학기 수업을 진행했고요. 특히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 번씩 화상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현지 방문하는 것 못지 않게 운영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현지에 한국 교수가 방문하여 수업하면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일 수 있는데 영상수업으로 오히려 더 다양한 교수진이 참여해주신 덕분에 폭넓은 교육을 전할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도 실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아두이노 실험 키트를 도입하며 최신의 교육 트렌드를 반영하여 실습 환경을 조성하기도 했다. 현지에 설치된 적정기술 거점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실습을 돕고, 캡스톤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원활한 수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실질적인 연구 참여가 이루어져야 교육에도 능률이 오르는 법. 이러한 수업 방식에 현지 학생들도 반응이 매우 뜨겁다.

배워서 남 주는 사랑의 실천

"GDP가 1,000불대인 개도국 사람들이 우리의 기술을 배우고, 후에는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서 자생하도록 돕는 것이 공학교육 봉사의 최종 목표예요. 한편으론 사업 집행 주관대학으로서 남다른 마인드 없이는 어려운 목표이기도 하죠. 한양대의 모토인 '사랑의 실천'을 몸소 보여주시는 총장님이 계셨고, 지지해주신 공학대학 교수님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예요."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단의 의지 뿐만 아니라 이를 지탱해주는 대학의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사업을 위한 대학의 다각적인 배려와 협심은 현지 교육 활성화에 윤활유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올해 연말에는 이러한 지원을 발판삼아 학생들과 함께 탄자니아에 방문할 계획이다. 현지 학생들과 실험실습을 함께 하고 과학캠프를 여는 등, 공학 봉사의 진수를 전해줄 예정이라고. 남다른 경험인 만큼 1:1 면접을 통해 꼼꼼하게 마음과

생각을 공유하여 팀원을 구성한다고 한다. 봉사를 위한 학생 개개인의 안전과 건강은 이 교수가 가장 염두에 두는 부분이다. 현지인을 위한 활동이기도 하지만 결국 본인에게도 큰 자양분으로 그 시간이 기억되기 때문이다.

"보통 현지를 10일 방문하면 전기관련 봉사활동, 세미나나 학회, 과학 캠프 등으로 진행되요. 쉴 틈없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오히려 여기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돌아와요. 베풀고 섬기기 위해 찾아간 봉사단에게 오히려 마음을 표현해주는 현지인들의 상냥한 나눔에 큰 감동을 받고 오는 거죠. 이러한 순수한 교류를 경험해 본 학생들은 다음에도 다시 참여를 하더라고요."

이선영 교수가 이처럼 활발히 공학교육 봉사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2012년에 처음 시작한 공학봉사단이 계기가 됐다. 2011년 서울대에서 창립된 네팔 솔라 봉사단의 제안으로 서울대, 한양대, 경상대 연합으로 출발한 공학봉사단은 네팔 고산지대에 발전기와 LED 전구를 설치해주는 봉사를 시작했다. 해발 1,500m의 비포장 도로를 장시간 버스와 트럭을 타고 도착한 고산지역에서의 봉사활동. 육체적으로 편안했다고 할 수 없지만, 활동 과정에서 느낀 현지인과의 유대감과 교류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봉사로써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는 지역의 모습에 공학 봉사가 가진 실질적인 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첫 해에는 LED전구를 설치해주고 돌아왔는데, 해가 지나면서 그 지역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해에 방문했더니 라디오를 켜서 방송을 듣다가 그 다음 해에는 위성TV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서서히 문명이 깨어나는 것을 보니 기술이 가진 변화의 힘이 놀랍게 여겨졌죠."

인터뷰 마치며 이선영 교수에게 평소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더니 '오뚜기 같이 다시 일어나는 힘'이라고 답해왔다. 연구란 본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실패와 좌절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사회 환류 역시 마찬가지다.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탄자니아 땅의 먼 미래를 위해 씨앗을 심듯,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선영 교수의 마음이 IEEP사업단이 가진 사업의 가치를 대변해주는 듯하다. 본 사업을 통해 탄자니아 땅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해본다. **HY**









1. 탄자니아 아루샤공과대학 IEEP사업단 개소식
2. 한양대학교 유학생 출신 탄자니아 하지나 학생의 재료과학 질의응답
3. IEEP사업단이 아루샤공과대학에 설치한 만능시험기(인스트론)

찬성 득표율 88.65%,
제40대 총학생회 '결'

진정성있는 소통으로 결이 다른

지난 3월, 보궐선거를 통해 전체 투표율 43.99% 중 찬성표 88.65%를 획득한 제40대 총학생회 '결'이 공식 출범했다. 임기를 시작하고 한 학기를 통과하고 있는 지금. 수행해야 할 숙제가 수두룩하다. 총학생회장 김성봉(건설환경공학과 16) 학생과 부총학생회장 박세원(분자생명과학과 14) 학생을 만나 앞으로의 1년을 이끌어 갈 계획과 포부를 들어봤다.

글 이연주 **사진** 손초원

에리카 제40대 총학생회 결은
리(이)번 다가오는 축제를 통해 지친 일상 속
카페인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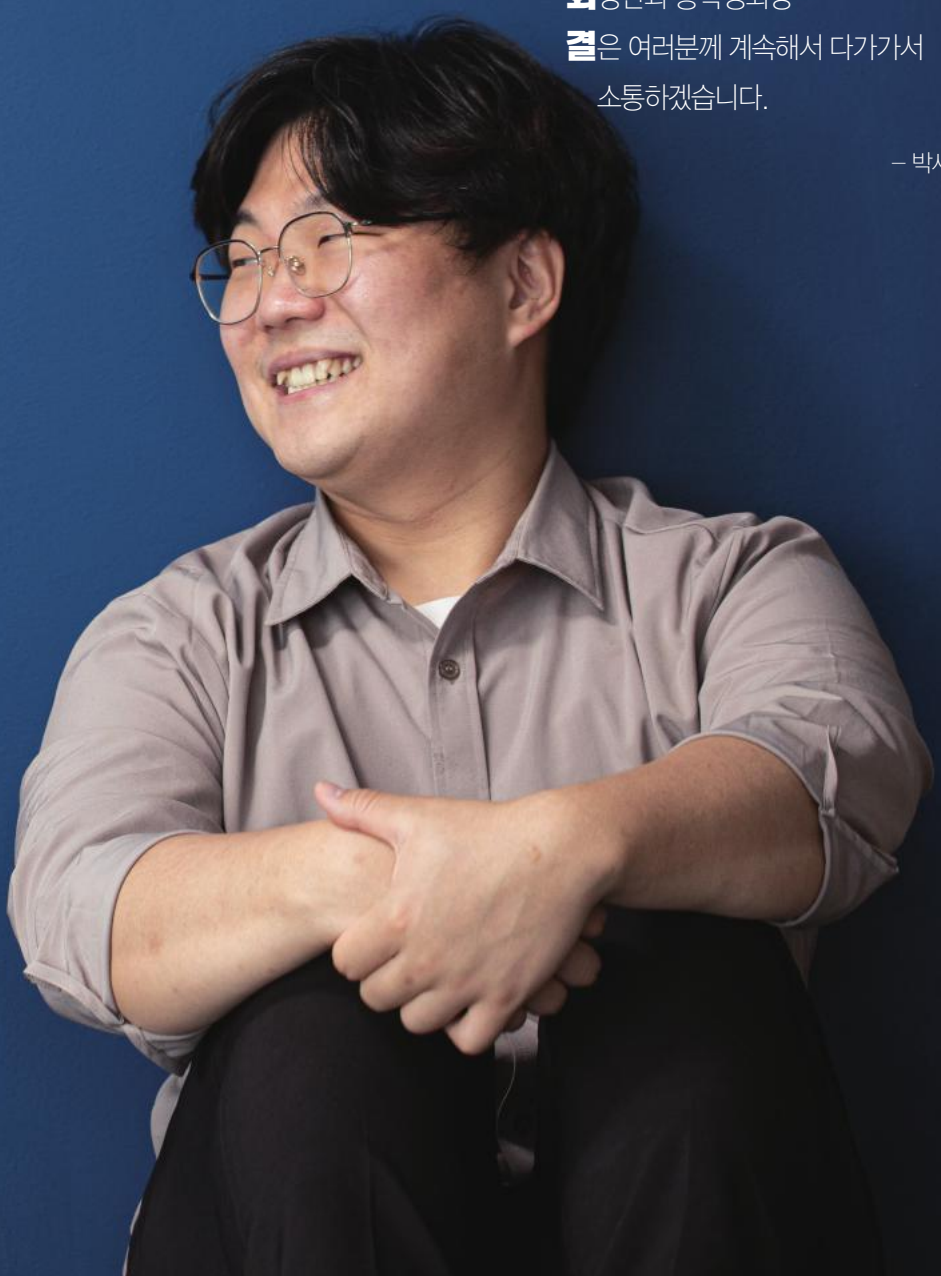
– 김성봉 총학생회장



총학생회를 꿈꾼다

총학생회 결은 전과 다릅니다. 그렇기에
학생분들이 많은 기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기 넘치는 학교 생활을 만들어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장단과 총학생회장
결은 여러분께 계속해서 다가가서
소통하겠습니다.

– 박세원 부총학생회장



학우들에게 다가서는 우리만의 방법

김성봉, 박세원 학생은 2021년도 각자가 단과대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며 알게 된 사이다. 과학기술융합대학 학생회장이던 박세원 학생의 행사 진행 능력을 인상깊게 여겼던 김성봉 학생의 제의로 총학생회 '결'이 꾸려졌다. 서로의 활동을 인상깊게 여긴 두 학생은 하나의 팀을 이루어 각자의 장점을 통해 상호보완을 이루게 됐다.

좋은 합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신뢰를 통해 야심차게 출마했지만 첫 출마에서 투표율 미달로 낙선을 경험했다. 비대면 강의로 학생들이 학교와 총학생회 활동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이 큰 원인이었다. 거리두기 국면으로 대학 생활과 학우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만큼, 기존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충분히 어필할 수 없다는 것을 김성봉 학생은 깨우쳤다고 한다.

"기존의 정형화된 방식은 과감히 버리기로 한 후에 어떻게 하면 총학생회의 역할을 알리고,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을 지 고민했어요. 그 결과로 학교 발전과 공약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선거운동으로 방식을 전환했죠. 공약집과 스티커를 나눠주면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유도했고 호응과 참여율도 매우 높았어요. 덕분에 이전보다 투표 참여를 더 이끌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공약집 배포, 설문조사를 통한 캠페인 방식의 선거운동을 통해 두 학생은 학우들이 총학생회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진정성'에 있음을 포착했다. 선거운동 당시 진행했던 설문조사는 현재도 총학생회를 운영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어 업무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



마음을 열고 생각을 합치는 소통

총학생회 SNS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이벤트 이슈보다 학생의 권리와 입장을 대언해줄 때 더 뜨거운 관심을 받는다고 한다. 학생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변인의 역할을 기대하는 학우들의 바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학우들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대학과 관련사항을 공유하며 원활한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이야 말로 총학생회가 추구하는 소통의 핵심. 박세원 학생은 넓은 시야로 문제를 바라보고 차근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학우분들이 에브리타임이나 SNS DM으로 많은 건의 사항을 보내주세요. 대부분의 건의 내용은 교수님들이나 행정 부서와 꾸준히 조율해야 하는 것들이죠. 그럼에도 총학생회가 최우선에 두는 것은 학생이기 때문에, 설득과 실행을 위해 다각적인 대안을 고민해서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선거운동을 통해 학생들의 니즈를 세밀히 파악하며 노력을 기울인 만큼, 이번 총학생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역시 '소통'이다. 진정성 어린 소통을 이루기 위해 고민은 깊어지고 행동은 신중해진다. 대외적 조율과 협의를 이끄



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김성봉 학생에게 물었다.

"학생들과 온전한 소통을 위해서는 내부 소통이 원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수평적인 분위기를 추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회의록 공개'입니다. 저희 총학생회가 처음으로 시도한 것인데요. 총학생회가 무엇을 회의했는지,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학생들에게 투명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우분들이 저희 회의록을 보시면서 새로운 의견을 주시고, 질문을 전해주시면 피드백 삼아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ERICA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디테일

총학생회 결이 추구하는 것은 기존과의 차별화다. 고착된 대학 문화에 새로운 요소를 접목해 이전과는 다른 노선을 만드는 것은 이번 총학생회가 가진 목표 중 하나다. 수습부원부터 임원까지, 아이디어 회의를 거치면서 기존에 있었던 반복되는 행사와 이벤트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신선하고 차별성 있게 운영할지 고민하고 있다.

"시험 기간에 진행하는 간식 이벤트를 예로 들자면, '시험 공부 인증을 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어떨까' 하고 상상해보는 거예요. 혹은 이벤트를 여름방학에도 진행해서 '방학에도 즐겁게 올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건 어떨까' 하는 발상의 전환을 하는 거죠. 덕분에 참신하고 시도할 만한 아이디어를 많이 도출할 수 있었어요. 의미있는 차별화를 불러올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방법을 모색하는 거죠."

박세원 학생은 특히 수습부원들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어 행사 진행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40대 총학생회의 출범은 평년에 비해 많이 늦어졌다. 4월부터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한 이들은 당장 한 달 안에 5월 셋째 주에 있을 봄 축제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총학생회이기 전에 학생이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영위해야 하는 일상이 있는 터라 그야말로 24시간이 모자라다. 김성봉 학생은 바쁜 일정 속에도 학우들과 캠퍼스 문화를 공유하며 누리기를 희망한다며 자신의 의지를 드러냈다.

"학우들이 대학에서 스스로를 발견하고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학교를 꿈꾸고 있고요. 최근 2년동안 코로나19로 학교 생활에 대한 낭만과 자유를 충분히 누리기 못했던 것이 너무 아쉬워요. 인간은 추억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올해부터 라도 캠퍼스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좋은 추억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라는 먹구름이 조금씩 가시면서 캠퍼스에 생기가 돋아난다. 학생들 하나하나가 빛이 나는 이곳 ERICA에서 총학생회 결이 만드는 새로운 그림은 이제 막 그려지고 있다. 이들이 만든 캠퍼스에 대한 다양한 상상이 새로운 문화로서 확산되는 시작이 되길 바라본다. HY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알아야 할 경제 상식



투자 연령대는 낮아지고 주식, 가상화폐 등 투자에 대한 조언이 난무한 이 때. 나의 자산은 지키고 바람직한 투자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상식을 전문가를 통해 들어본다. <편집자 주>



글 김누리(경영학부) 교수

요즘과 같은 복잡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상살이를 위해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경제에 대한 지식의 양은 그야말로 나날이 폭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는 무엇보다도 이 주제는 일반 대중의 소위 재테크를 통한 재산증식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작금의 상황에 잘 부합하는 주제라는 점에서 '금융자산 투자'에 대해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투자(investments)라는 것은 경제학적으로는 미래의 더 큰 소비를 위하여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는 행위이며, 구체적으로는 투자대상 자산(assets)을 매입하여 그 자산으로부터 주어지는 현금을 얻거나 또는 자산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이 실물자산(real assets)이 아닌 금융자산(financial assets)인 경우를 금융자산 투자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금융자산 투자에 있어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알아야 할 상식"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필자는 다음의 두 가지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투자는 자기책임"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일견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원칙을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해석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시장의 활황기와 침체기에 나타나는 투자자들의 전형적인 반응에서 잘 드러난다. 시장의 활황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높은 투자수익을 얻게 되며 이러한 높은 수익을 그들의 많은 노력과 옳은 판단의 (때때로는 행운의)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이때는 "투자는 자기책임"이라는 원칙에 모두들 동의한다. 투자의 결과는 투자 의사결정의 주체인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따라서 투자자들은 그들의 투자수익을 얻고 기뻐한다. 그러나 시장이 침체기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활황기와는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손실을 입게 되는데, 문제는 많은 투자자들이 이러한 손실을 자신들의 부족한 노력과 잘못된 판단의 정당한 대가라고 (심지어 때로는 불운의 대가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투자는 자기책임"이라는 말은 투자자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진다. 투자의 결과는 좋건 나쁘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투자자들은 그들의 투자손실을 참을 수 없어 하며 이러한 나쁜 결과는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고(또는 아니어야 한다

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투자 손실은 부당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은 시장이 불황인, 자신이 투자한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로 돌리게 된다. 여기서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누군가'의 후보자들은 매우 많다. 해외에서 발생한 전쟁, 범 지구적 전염병, SNS에서 입을 함부로 놀리는 최고경영자, 탐욕적인 외국인 투자자들, 공매도 등등.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본인 편의적으로 비대칭적이라는 것이다. 금융자산의 가격은 여러 가지 사건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자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별 불만이 없으면서, 반대로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러한 불만은 "정부는 뭐 하는가?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라!"라는 외침과 함께 정부에 대한 대책 촉구로 쉽게 전환된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으로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공유화'에 다름없는 것이며, 알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 글자 그대로 '도둑놈 심보'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원칙은 위험-수익 상충관계(risk-return tradeoff)이다.

복잡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수익률 변동성이 큰 투자가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높다'는 의미이다. 이를 표현하는 경구가 바로 "High risk, high return. Low risk, low return"이라는 유명한 표현이다. 이것은 자연법칙과 같이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금융자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현상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상충관계는 금융투자에 있어서 높은 평균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수익률 변동성이 큰, 즉 위험이 큰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위험이 큰 투자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큰 투자손실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투자자가 높은 손실을 볼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평균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이 상충관계에서의 수익은 평균수익의 개념이다. 즉, 수익률 변동성이 큰 투자를 매우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률의 전체 평균이 높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한 번 투자를 했을 때 높은 수익률을 얻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투자자들은 그것이 남들보다 우월한 자신들의 투자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기를 즐겨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우월한 투자능력보다는 단



한 번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얻게 되는 경우 많은 투자자들은 우월한 자신들의 투자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기를 즐겨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우월한 투자능력보다는 단순히 운(luck)이 좋았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순히 운(luck)이 좋았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쉽게 표현하자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어떻게 6이 나와 게임에서 이긴 것인데, 당사자는 자신이 주사위를 잘 던져서 6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과 유사하다.

문제는 많은 투자자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 상충관계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것은 모든 투자자들에게 공통되는 바람일 것이다. 그러나 그 높은 수익률의 대가로 부담해야 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투자자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즉 어느 정도의 위험을 부담하고 투자를 하는 것인지 알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높은 수익률만을 바라보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의 투자행태는 실제로 많은 경우에 높은 투자손실로 나타나게 된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식의 위험한 투자를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하면 (또는 장기투자하면) 결국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고.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다. 다만 문제는 상당수의 개인투자자들이 이런 위험한 투자를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하는 것이 다양한 심리적,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실제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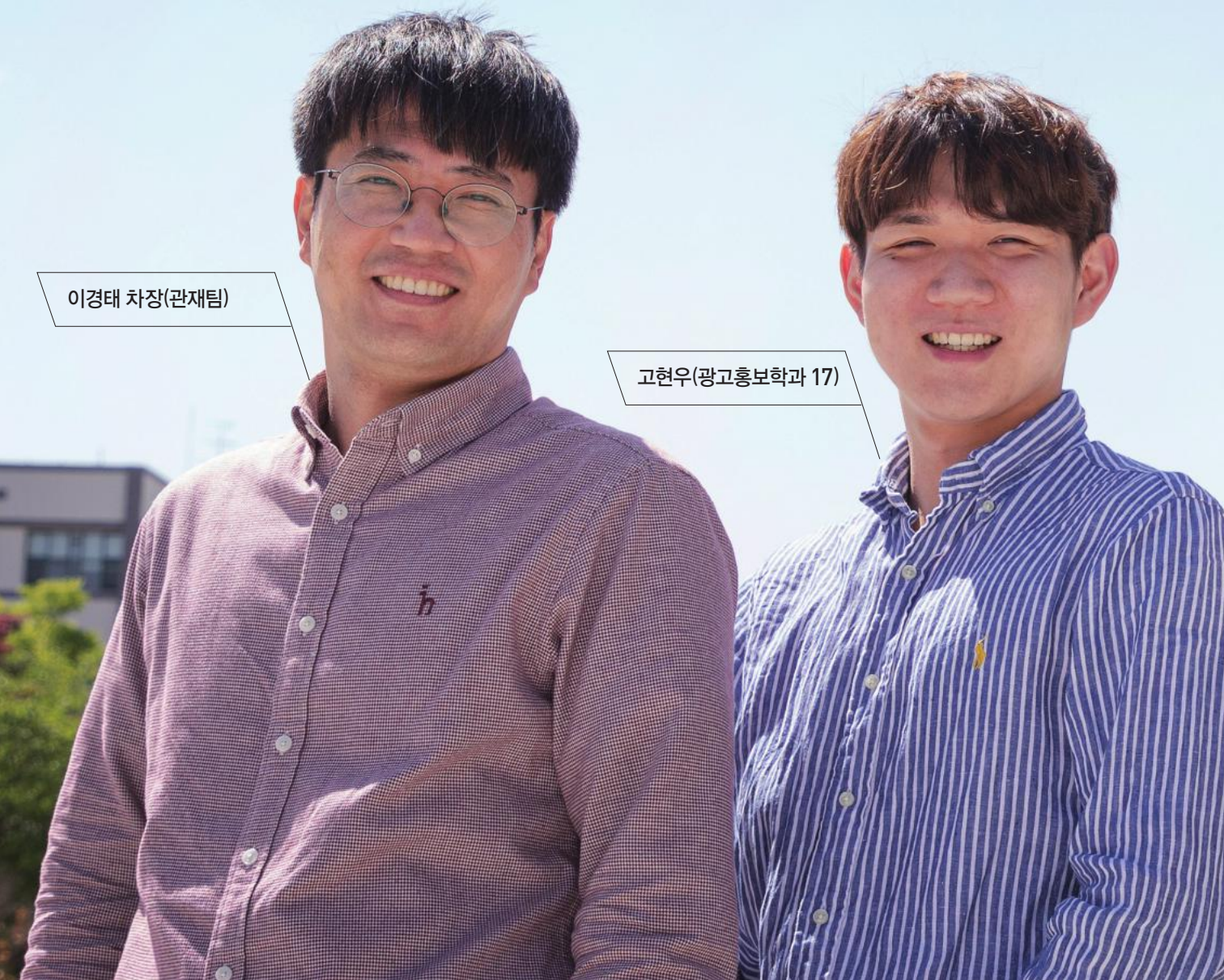
이러한 두 가지 원칙에 대한 무시는 적지 않은 경우에 서로 결합되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해서 위험한 투자를 하지만 그 위험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투자손실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부당한 것이라고 느끼게 되고 당연히 이러한 부당한 손실을 정부가 책임지고 구제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의외로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자들이 많아질수록 금융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HY

가치 있는 변화를 이루는 **학생과 대학의** *High-Five*

PLASENT 팀

대학은 청춘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 꿈꾸는 가치를 실현시키는 터전이다. 학생은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주체적인 사고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할 기회를 얻는다. 학생의 무궁한 가능성에 대학이 힘을 합친다면 더 놀라운 파급력을 실현할 수 있다. 교내 플라스틱 배출 캠페인을 위해 의기투합한 PLASENT팀의 활동이 그 선례가 되어주고 있다.

글 이연주 **사진** 이현구



쉬운 방법 대신
올바른 방법으로

"저희 팀은 광고홍보학과 IC-PBL 수업인 이노베이션 마케팅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노베이션마케팅 수업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수업인데요.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보다가, 저희 단과대에 쓰레기 배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2020년에 사립대 사회책임지수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성원들의 환경 의식은 다소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죠."
플라센트 팀은 수업의 일환으로 카페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을 음료가 담긴 채로 버린다던지, 페트병의 라벨지를 제거하지 않고 버리는 등, 분리 배출이 잘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포착했다. 보다 정확한 문제 인식을 위해 교내 학생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투명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의 분리 배출 인식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설문 참여자 90% 이상의 학생을 통해 분리배출 할 수 있는 쓰레기통이 마련되면 참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본격적으로 플라센트 팀은 어떻게 하면 바르게 분리배출 문화를 만들 수 있을 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사실, '분리수거를 잘합시다!' 라는 말보다 확실한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례를 조사하다가 의류기업과 환경부가 함께 협업했던 사례를 발견하게 됐죠. 이것을 토대로 ESG경영을 하는 여러 기업,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 업사이클링을 통해 원사를 뽑아 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찾아 캠페인을 제안했어요. 저희가 마케팅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다 보니 기업들을 컨택하며 부딪치는 것은 무섭지 않았어요."





기획단계부터 실행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다. 하지만 진행하면 할 수록 단순히 IC-PBL과제 수행을 넘어 학교의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다. 서툴지만 차근히 기획을 진행하며 올해 상반기까지 프로젝트를 전개할 수 있었다. 종료 이후에는 협업 기업인 Project 1907 측에 배출된 플라스틱은 윤가영 학생이 디자인한 에코백으로 제작이 되고, 캠페인 참여 응모자들을 추첨하여 증정된다. 수업 이후 자발적으로 캠페인을 주도했다는 점도 고무적이지만, 캠퍼스에 대한 학생들의 순수한 소망이 캠페인의 가치를 더욱 빛내는 것 같다.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구성원들의 참여가 조화를 이룬 셈이다.

어느 날, 갑자기 그대들은 다가와

"학생들이 기존의 환경 문제를 인식은 하고 있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분리수거 같은 쓰레기 배출이 우리나라는 매우 잘 되고 있는 나라이지만 그것이 혜택으로 돌아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페트병의 분리 배출 같은 노력이 우리에게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줄 아이템이었던 거죠. 그 점이 대단히 매력적이었어요."

관재팀 이경태 차장이 플라센트 팀을 처음 만난 건 기말고사를 앞둔 12월 초 였다. 캠페인의 구상과 방향성은 구체화되었으나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학 행정팀과의 소통과 협업이 기반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경태 차장의 눈에 참신하고 반짝이는 아이디어임이 분명했지만 동시에 진행에 따른 고민도 깊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 미숙할 수 밖에 없어요. 프로젝트는 구상이 됐는데,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당연히 막막한 거죠. 학생들과 행정팀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여러모로 마련되어 있는데 그 방법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러한 것을 뒷받침 해주고 잘 알리는 것이 앞으로 저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진취적인 아이디어가 빛나기 위해선 실무 감각을 갖춘 짜임새 있는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진행에 따





안민영(광고홍보학과 19)



이재희(광고홍보학과 19)



고현우(광고홍보학과 17)



이경태(관재팀 차장)

르는 여러 난항이 예상됐지만, 학생들의 적극적인 아이디어가 산학 간의 연계로 이어지고 이것을 대학 행정부서에서 뒷받침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관재팀은 판단했다.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한 수업, 그리고 이것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과 행정적 실천. 학생과 교수, 행정이라는 대학의 세 주체가 협동구조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의미가 깊다. 종강 이후에도 프로젝트를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 긴밀히 협의하며 캠페인은 더욱 견고해졌다. 학생들에게도, 진행을 함께한 이경태 차장에게도 협업의 과정은 새로운 길을 만드는 여정이었다.

ESG 선두에 선 ERICA를 꿈꾸며

플라센트라는 팀 명은 Plastic과 Present를 조합해 학생들이 만든 합성어다. 올바른 분리 배출로 업사이클링이 이뤄지면 지구와 우리 모두에게 선물이 되어 돌아올 거라는 의미를 담았다. 대학과 구성원들, 더 나아가 환경에도 선물 같았던 이번 캠페인.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인 만큼, 이번 프로젝트는 그들에게도 선물 같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학생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뒤에서 든든히 지원해준 이경태 차장에게도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문화를 조성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학생들로부터 나온 이러한 아이디어 사업이 무척 흥미롭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환경 캠페인보다 참신하게 진행이 됐고, 학생들로부터 오는 희망적인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진행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안민영 학생은 "학생들이 가진 인식을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이 캠퍼스에 잘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팀장이었던 이재희 학생은 "우리 대학이 환경을 생각하고 지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캠페인을 운영했다"고 말하면서 덧붙여 "우리 대학이 ESG 대학으로서 선두에 서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대학은 학생들이 다양한 꿈과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다. 캠퍼스 곳곳이 학생들의 교육 자원이다. 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대학 구성원들의 조직적인 지원이 있기에 ERICA의 아름다운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HY



ERICA 역량 새로 배우기 프로그램
(ERICA CORE: Competence-Oriented Restart program)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며 수학, 과학, 소프트웨어 능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많은 학문들이 관련 분야에 맞춰 고도화되고 있는 지금. ERICA 역량 새로 배우기 프로그램 ERICA CORE는 새내기들의 대학 교육을 뒷받침해주고, 4차 산업 핵심 역량을 채워주고 있다. ERICA CORE를 경험해 본 새내기에게 직접 ERICA CORE 참여 후기를 들어보자.

정리 편집실 **사진** 손초원



송서인
소재부품융합전공 22학번



22학번이 직접 체험한 믿고 보는 후기

안녕하세요! 저는 소재부품융합전공 22학번, 송서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문과 학생이었지만 표면처리 분야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관련 분야를 경험하다 보니 적성에 잘 맞았고, 심층적인 공부를 하고 싶어서 ERICA 소재부품융합전공에 입학했습니다. 스마트융합공학부의 소재부품공학과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예요. 1학년에 60학점을 들어야 해서 다른 학과보다 더 바쁘게 1년을 지나게 되는데요. 대신 사회에 조금 더 빠르게 진출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일과 학교 수업을 적절히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이 사회생활을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진학하게 됐어요.

입학 전부터 공부시키는 대학이 있다?

2월이었을 거예요. 수시전형 합격 통보를 받은 지 얼마되지 않아서 ERICA CORE수강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심지어 등록금 내기도 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공부보다는 학교 생활에 대한 들뜬 마음이 더 컸던 지라 ERICA CORE 이수에 대해 사실 조금 안일했던 것 같아요. 기초화학과 기초물리를 들었는데, 이수해 놓았다면 전공 수업 초반부터 조금 더 수월했을 것 같아요.

Tip ERICA CORE 6과목

- CORE기초통계
- CORE기초기하벡터
- CORE기초미적분
- CORE기초물리학
- CORE기초화학
- CORE기초파이썬

ERICA CORE, 개강 전에 이수 못한 사람 없게 해주세요.

입학 전에 비대면으로 2월달부터 수업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2월 수료는 시기를 놓쳤어요. 전공 수업을 듣다 보니, 학기 시작 전부터 수업을 진행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학기 중 수업과 병행하기도 쉽지 않고, 수업 내용을 소화하는 데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예비 23학번 중 ERICA CORE를 들으실 분이 계신다면, 무조건 2월 안에 이수하세요.

Tip ERICA CORE 이수 조건

- 학습 참여(출석 50%+학습활동 50%) = 60점 이상
- CORE 인증시험 60점 이상 취득

튜터님, 꼭 한 번 만나고 싶습니다.

ERICA CORE는 한달 동안 수업을 하고 CORE 인증 시험을 치르게 되요. 만약 시험을 패스하지 못하면 튜터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강의에서 따라가기 어려웠던 부분을 튜터링 1:1 수업을 통해서 보강하게 돼요. 튜터님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공부하다 지칠 때 응원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언젠가 튜터님을 만난다면 평생 형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ERICA CORE, 오히려 좋아!

문과 학생이었던 터라 공대 수업을 듣다 보면 가끔 '외계어' 같이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ERICA CORE를 들으면서 강의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제 귀가 약간 트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ERICA CORE를 통해 조금씩 기초가 잡혀서 강의 내용을 훨씬 폭넓게 흡수되는 것 같아요. 일찍 수료하지 못한건 아쉽지만, 수업과 병행해서 좋은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문과 학생도, 수학과 과학에 대한 기초가 부족한 친구에게도 ERICA CORE는 정말 강추하고 싶어요. HY





김정현(전자공학부) 교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육의 선순환**

복나눔 멘토링 프로그램

해당 QR코드를 통해 복을 나누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과 후원에 참여할 수 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유명한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하나의 인격체가 자라나는 데는 교육과 사회적 자원, 지속적이고 일정한 관심이 자양분이 된다는 의미일 터다. 마음을 어루만지고 양질의 학습을 제공하는 복나눔 멘토링 프로그램은 이 모든 것을 충족한다. 프로그램의 기획자인 김정현 교수는 오늘도 교육의 회색지대를 찾아 빛을 밝히기 위해 힘쓰고 있다.

글 이연주 **사진** 손초원



차세대에게 미래를 안겨주는 기부

사단법인 복을 나누는 사람들은 현재 한양대를 비롯해 총 5개의 대학과 함께 복나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기획자이자 법인의 상임이사인 김정현 교수는 프로그램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제시했다.

"도움이 절실한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어린 친구들에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죠. 두번째는 공부 잘 하는 우리 대학생 형, 언니들이 멘토로서 잘 양성되어 따뜻한 마음을 청소년들과 나눌 수 있도록 금전적, 교육적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값진 마음을 전달받은 멘티 청소년들이 후에 청년 멘토로 성장해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랑을 듬뿍 받아 성장한 멘티가 후에 멘토가 되어 차세대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선순환. 여기에 더하여 멘토 학생들이 사회인이자 멋진 기성세대로 자리잡은 이후에는 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후원자가 되어 더 넓은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것. 이것이 복나눔 멘토링 프로그램이 가지는 최종의 목표이자 순환구조의 비전이다.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일.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김정현 교수에게 문의를 하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교수로서의 직무도 무거울 텐데 이러한 사업은 어떻게 기획이 된 걸까.

도움이 절실한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후에 청년 멘토로 성장해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회사를 다닐 때, 미국의 다른 문화에는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도 기부 문화 하나만큼은 정말 배울 만한 문화라고 생각했어요. 기부 자체에 대해 매우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문화. 성공의 목적 자체가 나눔에 맞춰져 있었죠."

미국 생활을 하며 다양한 기부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김정현 교수는 기부는 순간의 감동이 아닌 오랜 시간에 걸쳐 전수되어야 할 문화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가진 것을 환원해야 겠다는 마음을 먹은 후 미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며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13억의 종잣돈을 가지고 값진 나눔을 실행하리라 다짐했다.

"차세대들에게 미래를 설계하도록 도와주고 자립시켜주는 예방적 차원의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예방적 복지를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절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향을 잡게 됐죠."

사교육 없이 공교육 만으로 경쟁력을 갖기 힘든 요즘. 교육의 양극화를 해결하고 청소년들이 절망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교육적 나눔을 진행할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한때 교육 봉사, 멘토링 프로그램이 붐을 이루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사업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인만큼 멘티 청소년들은 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사업적으로도 무책임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은 교육기관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양대학교의 사회봉사단은 국내 대학내에서도 가장 내실있고 규모있게 운영되는 기관이다. 부단장으로 활동하던 동료교수의 권유를 통해 복나눔 멘토링 프로그램을 한양대에서 처음 시작했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위해 대학 입장에서도 많은 수고가 따른다. 멘토 양성을 위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위한 강사 섭외, 멘토 학생 관리까지. 한편으론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의 노하우와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짜임새 있는 운영이 가능했다.

마음을 열고 바른 가치관을 배양하는 멘토링

김정현 교수의 기부와 대학의 지원, 지역 교육청의 열렬한 관심. 모든 것이 합력해 2018년 복나눔 멘토링 프로그램은 순항을 시작했다. 주 2회 4시간씩, 멘티 학생의 학교로 찾아가 1:1로 밀접 교육을 진행하는 복나눔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업의 정량적 측정에 집중하지 않고 마음을 어루만지며 유대감을 형성해 수업을 진행하도록 기획되어 있다.

"저희 멘토링 프로그램의 원칙은 '안전'입니다. 동성 간의 1:1매칭으로, 멘티의 담임교사 지도아래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죠. 많은 학교와 함께 하고 싶어도 담임교사의 감독이 가능한 학교와 연계가 이뤄집니다."

멘토 선정 과정도 매우 까다롭다. 멘토 학생들을 위한 창의나눔프로젝트 교과목을 개설해 사회봉사 및 기부에 관한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를 선발한다. 멘토링 활동 후에는 멘토 성찰일지와 보고일지를 기록하게 하여 멘토 스스로의 성장을 느끼게 하고, 부족함을 통해 성찰하도록 과제를 부여한다. 제법 까다롭고 귀찮을 수 있지만, 이 과정 속에서 멘토 학생들은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하고 삶의 목표를 재설정하는 기회를 갖는다.

"멘티 학생들을 선발할 때 저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기준은 정책적 복지 혜택과도 거리가 먼 '회색지대'의 아이들입니다. 겉보기엔 문제가 없어 오히려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하죠. 이렇게 매칭이 된 학생들과는 최소 1년의 멘토링을 시작합니다. 지속적이고 정착된 관계 안에서 멘토링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멘토링은 친밀감을 바탕으로 멘토-멘티 모두의 변화를 이룬다. 삶의 의미를 모르던 청소년들이 멘토들을 만나 사고와 가치관이 변화하고 꿈을 찾아가는 것. 진정성 있게 접근하니, 진심은 통하는지 멘티들도 사랑을 받고 쑥쑥 자란다. 어느덧 5년이



흘러, 한양대에서 시작했던 복나눔 멘토링 프로그램은 현재 5개 대학, 64개의 중·고등학교, 700여 명의 학생들에게 확대하여 제공되고 있다.

"제가 처음에 마련한 기금의 출처는 미국회사에서 퇴직할 때 받은 회사 주식이었어요. 그 사이에 주식도 꽤 올라서 앞으로의 5년 운영은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 다음 5년을 준비해야 할 때인 것이죠."

매년 최소한의 운영비와 멘토 학생들을 위한 작은 장학금 등 규모있게 예산을 사용하려면 대학당 최소 1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 놀랍게도 예상치 못한 경로로 채워지는 자금은 다음 5년을 위해 사용된다. 김정현 교수가 설립한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은 우리 모두가 복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다. 우리 일상에 가진 기쁨과 행복이 있고, 또한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전달해주는 듯하다. 자신이 가진 복을 나눔으로 발견하는 경험을 해보는 건 어떨까. 김정현 교수는 이 일에 함께 해줄 복을 나누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 HY

어서와,
에리카는 처음이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ERICA 공간

거리두기가 천천히 완화되면서 학생으로 북적이는 캠퍼스에도 활력이 돈다. 대학 생활이 주는 자유와 낭만은 포기할 수 없는 특권이다.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ERICA. 22학번 새내기들이 생각하는 ERICA의 자랑거리는 무엇일까.

글/정리 편집실 **사진** 이현구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학과

22학번 김서현입니다.

저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했어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탐구를 비교과 활동으로 해온 것이 입시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인공지능 개발을 하면서 빠르게 진로를 정하게 된 만큼 공부에도 열심인 덕분에 학과 공부를 하면서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수학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 현재 저의 목표입니다.

본가가 제주도라서 ERICA에는 신입생 OT 때 처음 왔어요. 일단 학교가 너무 예쁘고 엄청 넓어서 얼른 캠퍼스를 누비며 놀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과 잠바 입고 친구들과 벚꽃 구경하러 가고 소풍 가는 것에 대한 로망도 있었는데 1학기에 대부분 경험해본 것 같네요!

대학 생활하면 역시 동아리 활동이죠! 저는 다양한 교내 동아리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평상시에 좋아하는 축구와 기타 동아리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학과 동아리로는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동아리에도 가입했어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배울 수 있다는 게 대학 생활의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호수공원을 내려다 볼 수 있는 학생복지관



학연산클러스터 5층 CUBE

학연산 클러스터 5층 CUBE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러워요. 열린 공간,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아요. CUBE에서 공부하면 왜 인지 공부가 더 잘되는 것 같아요.

새내기가 바라본 ERICA

ERICA는 산학협력이 잘 이루어져 있어서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게 가장 큰 자랑거리예요. 캠퍼스도 멋지고 건물도 훌륭하지만 친절한 선배들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인공지능학과 만능캐릭터, 김서현이 추천하는 ERICA 최애 공간



호수공원 & 학생복지관

제가 학교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공간은 (많은 학생이 그렇겠지만) 호수공원과 학생복지관이에요. 친구를 캠퍼스에 초대한다면 가장 보여주고 싶은 공간이죠. 호수공원을 바라보고 있는 학생복지관은 다양한 식음료 매장과 편의시설들이 있어서 학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공간이자 힐링의 공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홍보학과

22학번 박혜빈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광고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관련학과를 많이 알아보던 중 ERICA 광고홍보학과를 알게 됐고, 입시 목표로 삼았어요. 정말 오고 싶었던 학교였던 만큼 ERICA 캠퍼스 소개 영상도 많이 봤었는데요. 학교가 너무 예뻐서 마치 웹드라마 현장에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직접 와서 보니 영상만큼이나 멋진 것 같아요. 꿈에 그리던 광고홍보학과에 입학하고 첫 전공 수업으로 광고원론을 들었는데요. 제가 간절히 바랐던 대학에 입학해서 원했던 강의를 배운다는 것 자체로도 무척 설레었던 것 같아요. 학교생활도 열심히 해서 꼭 멋진 광고 기획자가 되고 싶어요.

입학하고 나서 거리두기가 해제된 덕에 동기들과 밥 먹고 과제하고 수업 듣고 술도 한잔하고. 캠퍼스 생활을 누리는 모든 일상이 너무 행복해요. 다만 아직은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게 아니니까 MT 같은 것은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학에 가면 가장 해보고 싶었던 MT도 올해는 꼭 가고 싶어요.



ERICA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호수공원



평소 가장 자주 찾는 공간으로 손꼽은 IC-PBL실에서 박혜빈 학생이 학과 학우들과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다.



호수공원을 정면으로 선베드 벤치에 앉아 힐링타임

언론정보대학 IC-PBL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만족하는 공간은 IC-PBL실입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동기들과 함께 과제를 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너무 조용한 곳에 있다 보면 약간 답답할 때도 있는데, 자유롭게 공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 발길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새내기가 바라본 우리 학과

국내 대학 광고홍보학과 중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우리 학과를 제일 자랑하고 싶어요. 무엇보다 선후배 사이의 돈독한 분위기가 신입생인 저에게는 학교생활을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HY

광고홍보학과 열정캐릭터 박혜빈이 추천하는 ERICA 최애 공간

호수공원

일단 풍경이 너무 예쁘잖아요. 학술정보관에서 공부하다가 힘들면 잠깐 나와서 산책하곤 하는데 탁트인 공간에 앉아 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동기들과 함께 저녁에 산책하기에도 좋고 무엇보다도 타 대학에 다니는 제 친구들에게 가장 자랑하고 싶은 공간이에요.



ERICA News

1

아고라 홍보관 리모델링 개관식 개최

지난 5월 25일 ERICA 신정문 아고라에서 '아고라 홍보관 리모델링' 개관식이 개최됐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우승 총장, 이한승 ERICA 부총장, 이상열 기획홍보처장 등 교무위원, 김경숙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교수, '기부를 구독하냥' 기부자 대표 3인, ERICA 대외협력팀 나눔 서포터즈 2기·3기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RICA 아고라 홍보관은 전자공학부 홍승호 명예교수와 1,612명의 재학생 기부자의 기부금 총 1억 9천3백5만 원, 지능형로봇혁신공유대학 사업 예산 1억 원으로 새롭게 조성된 공간으로, △지하 1층 미디어 갤러리 △1층 웰컴 홀 △2~3층에 컬처 갤러리 △4~5층 코워킹 갤러리 및 히스토리 갤러리로 이뤄져 있다. 특히 4~5층 코워킹 갤러리는 오픈 스페이스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점이 돋보인다.

이번 개관식에 참석한 김우승 총장은 아고라 홍보관 리모델링에 힘써준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 총장은 "ERICA 신정문 아고라는 '대학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대학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며 "활용도가 낮았던 아고라 홍보관이 리모델링을 기점으로 ERICA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아고라 홍보관의 활용을 격려했다.

이어 아고라 홍보관 리모델링에 크게 기여해 준 김경숙 교수와 홍승호 명예교수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수여했다. 아고라 홍보관 디자인 고문을 맡은 김 교수는 "대학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공로패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해외 일정으로 개관식에 참여하지 못한 홍승호 교수의 감사패는 대외협력팀에서 전달하기로 했다.





ERICA, 2022~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2

한양대 ERICA가 2022~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교육부가 지난 5월 31일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대입전형을 공정·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대입 평가에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학생의 입시부담 완화와 고교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번 지원사업(2022~2024) 에서는 평가지표에 '고교교육 연계성'영역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고교교육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을 반영하였으며, 선정평가는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가 높은 대학 및 고교·교육청 관계자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신청대학의 2022년 사업 운영 계획과 2023~2024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된 91개 대학은 2년 동안(2022년~2023년)재정지원을 받으며, 차후 중간평가를 통해 추가 1년(2024년)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교육부는 올해 91개 대학에 총 57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유형I 대학은 교당 평균 약 7억 원 내외로 총 540억 원을, 유형II 대학은 교당 약 2.5억 원 내외로 총 35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각 대학의 대입전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대입 평가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등 고교교육 변화에 발맞춰 운영되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ERICA, LINC 3.0 사업 선정

3

2022년 4월 28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LINC 3.0) 선정 대학을 발표했다. LINC 3.0 사업은 1~2단계 LINC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대학과 산업계가 상생 발전하는 산학연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대학 산학연협력 종합 지원 사업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1월 13일(목) 기본계획 발표 및 사업 공고 이후, 3월 3일(목)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았으며, 이에 대한 서면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사업수행대학을 최종 선정했다. 본 사업에는 올해 총 3,0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선정 대학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최대 6년간(3+3) 지원받게 된다.

한양대학교 ERICA가 선정된 △수요맞춤성장형 사업은 대학이 산업계 및 미래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기업과 협업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총 53개의 대학을 선정했으며 교당 평균 40억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LINC 3.0 선정 대학은 5월 중순부터 약 2주간 수정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5월 말 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인 사업 수행에 나서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신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체제하에서 대학 중심의 산학연협력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시기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일반대 LINC 3.0. 사업이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한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대학을 육성하여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RICA, K-water와 MOU 체결

지난 5월 11일 ERICA 본관 2층 프라임 컨퍼런스홀에서 ERICA가 K-water와 물환경 분야 지식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물·에너지·도시 넥서스 분야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강의·실습·현장견학·인턴십 등 양 기관에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체험 기회 제공 △물·에너지·도시 넥서스 분야 심포지엄·포럼·세미나 등 행사 공동 개최 △물·에너지·도시 넥서스 분야 유망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협력할 예정이다. 김우승 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인재개발과 더불어 R&D까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4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 선정

지난 5월 4일 한양대학교 ERICA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추진한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에서 '지능형로봇' 산업분야 주관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양대 ERICA는 광운대, 단국대, 숭실대와 공동으로 6년 간 총 48억 원의 정부지원을 받아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양대는 △지능형로봇 기반 산업 수요특화형 창의융합역량강화 △지능형로봇 산업분야 현장실무역량고도화 △테크비즈/인문소양/글로벌역량강화 △협력채널 확대 및 성과확산 활성화 등을 바탕으로 지능형로봇 기반 기술을 선도하는 공학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성준 한양대 ERICA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따른 로봇 산업분야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여 한 단계 높은 창의융합형 공학교육혁신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

대운동장 리모델링 공사 착공식 개최

지난 4월 27일 ERICA 대운동장 리모델링 공사 착공식이 대운동장 내 본부석 앞에서 개최됐다. ERICA 대운동장 리모델링 공사는 대학 스포츠의 교육 환경을 개선해 스포츠계 인재 양성의 메카로 발돋움 하기위한 첫 삽을 뜬 것이다. 새롭게 조성되는 대운동장은 ERICA로 이전한 우리대학 야구부와 축구부가 훈련 및 시합을 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을 갖추어 스포츠계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착공식에서 김우승 총장은 "ERICA의 성장에는 많은 구성원의 노력이 있었다"며 "랜드마크적인 대운동장 리모델링 공사로 ERICA가 새로운 성장을 향해 도약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양대학교 총동문회는 이번 대운동장 리모델링 조성을 위해 발전기금 1억원을 기탁했다. 대운동장은 올해 8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있다.

6



ERICA, 중기부 창업보육센터 최우수 운영기관 3년 연속 선정

한양대 ERICA 창업보육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가 실시한 '2021년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에서 S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최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ERICA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투자유치 연계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에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글로벌 VC인 앤틀러(Antler)가 공동 GP(General Partner)로 참여한 엔틀러지씨씨아이 울트라얼리펀드(250억 규모)에 출자함으로써 ERICA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및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7

ERICA SW중심대학사업단 제8회 SW창업 아이디어톤(On-line) 성료

8

한양대학교 ERICA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이하 SW중심대학사업단)이 '2022 ERICA Software-Up! 제8회 SW 창업 아이디어톤(on-line)'을 성료했다. SW중심대학사업단은 매년 4차 산업혁명 시대 청년 창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SW 창업 아이디어톤(On-line)'대회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로 8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는 'SW를 활용하여 사회적, 보편적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기'라는 주제로 개최돼 총 20팀이 참가했다. 대상을 수상한 어디가냥팀은 플랫폼 '어디가냥'을 통해 "모든 이동 수단을 현재 상황에 맞춰 예약부터 결제까지 할 수 있는 교통 통합 서비스로, 앞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활용성 기술 확장,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 확장, 관광 서비스 통합 결제 제공, 교통 빅데이터 수집 등으로 플랫폼을 확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NKCL바이오그룹, 한양대 ERICA에 '세포배양 자동화 연구소' 설립

9

지난 4월 6일 NKCL바이오그룹(엔케이씨엘바이오그룹)은 한양대학교 ERICA 내 산학연구 및 교육 본격화를 위한 세포배양 자동화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NKCL바이오그룹은 지난 2월 16일 한양대학교 ERICA에서 한양대 맞춤의약연구원(HY-IPT)과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한양대 ERICA에 위치한 세포배양 자동화 연구소에서는 NK세포배양을 자동화하기 위해 최적화된 세포배양 KIT를 개발하는 등 NK세포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나아가 해외 우수연구자 초빙, 연구인력 교류, 국제 공동 워크숍 등을 추진해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확산하고 R&D 성과를 확산하는 데에도 힘을 모을 전망이다.

고(故) 남상남, 임태성 교수 추모 기념 식수

10

ERICA와 체육계 발전에 기여한 고(故) 남상남 교수, 고(故) 임태성 교수를 추모하는 식수 행사가 지난 4월 1일 ERICA 체육관 야외농구장 근처에서 열렸다. 이날 식수식에는 이한승 한양대 ERICA 부총장, 권태원 한양대 ERICA 예체능대학장, 박재우 한양대 ERICA 스포츠과학부장, 김동환 한양대 ERICA 스포츠과학과 주임교수, 고(故) 남상남 교수와 고(故) 임태성 교수의 유가족, 제자들이 참석했다.

권태원 학장은 헌정사를 통해 고(故) 남상남 교수와 고(故) 임태성 교수를 추모하며 "슬픔에 젖어있는 것이 아닌 두 분의 업적과 길을 물려받아 향후 체육계 발전뿐만 아니라 ERICA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한승 부총장은 "선배 교수, 교육자로서 두 분의 뜻을 기리고 싶고 마음속에서 영원히 함께하길 간절히 원한다"고 추모했다.



교수 동정

김성권·김기범 교수 공동연구팀, 코로나 감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가상현실(VR) 치료기술 개발에 나서




ICT융합학부 김성권·김기범 교수(좌측부터) 공동연구팀이 코로나19 감염 관련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가상현실(VR) 치료기술 개발에 나선다. 이 사업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2022년 보건의료기술연구 개발사업' 과제로 선정돼 향후 6년간 연구비 18억원을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트라우마 고위험군 맞춤형 치료전략을 개발하여 의료·사회적 비용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교수팀은 1, 2단계로 구분해 각각 3년씩 연구를 진행한다.

김세권 석좌교수, 키토산 올리고당 관련 서적 출간



해양융합공학과 김세권 석좌교수가 최근 Nature 학술지 출간으로 유명한 출판사 'Springer'를 통해 키토산 올리고당의 대량생산 방법 및 우리 몸에서의 생리기능성과 나아가 질환예방효과를 다룬 책을 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적을 출간한 한양대 김세권 해양융합공학과 석좌교수는 "하나의 생체물질인 키토산이 분자량이 서로 다른 올리고당으로 유도됨으로써 이들이 여러 질환의 예방이나 치료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를 본서를 통해 전문가 및 일반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출간 소감을 밝혔다.

김지원 교수, 광섬유 레이저 광원 개발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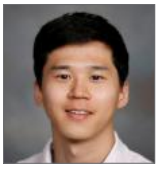
한양대학교 ERICA 나노광전자학과 김지원 교수가 참여한 공동연구팀은 2년간의 연구 끝에 지난 2월 단일채널 단일모드 출력을 최대 3㎾까지 높일 수 있는 광섬유 레이저 광원 개발에 성공했다.이 기술은 폭발물 원거리 처리 및 미사일 방어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 연구는 ㈜한화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고, ㈜한화는 이 기술을 폭발물 처리기 및 공중 공격 대응용 소형 레이저 무기 개발 등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효방 교수, 기후위기 관련 포럼 연사 참여



해양융합공학과 문효방 교수가 지난 5월 26일 서울 노들섬 다목적홀 숲에서 개최된 'H.eco Forum 2022'에 포럼 연사로 참여했다. 'H.eco Forum'은 (주)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는 기후위기 관련 포럼으로 지난해 처음 개최되어 올해 2회를 맞이했다. 이번 포럼은 "Climate Crisis and the Ocean; 기후변화와 바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문 교수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진행될 예정인 포럼의 두번째 세션 '해양생태계 변화(Changing Marine Ecosystems): 고래의 죽음, 'LAST:SEA'취재 그 뒷 이야기'에 참여해 대담을 진행했으며 본 포럼은 H.eco Foru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이영문 교수팀, 실시간 사람 동작 및 개인 인식기술 개발



로봇공학과 이영문 교수팀이 최근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사람 및 사람의 포즈를 인식분석하는 'PosePlusSeg'을 개발했다. PosePlusSeg는 AI가 사람을 인식함과 동시에 개별 행동을 추정할 수 있게 만든 기술이다. 해당 기술은 모션캡쳐 영역에서 활용은 물론 향후 AI가 다수의 사람을 동시에 인식하고 개인별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AI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PosePlusSeg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일까지 열린 인공지능 분야의 최우수 컨퍼런스 'A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AAI)'에서 발표돼 성과를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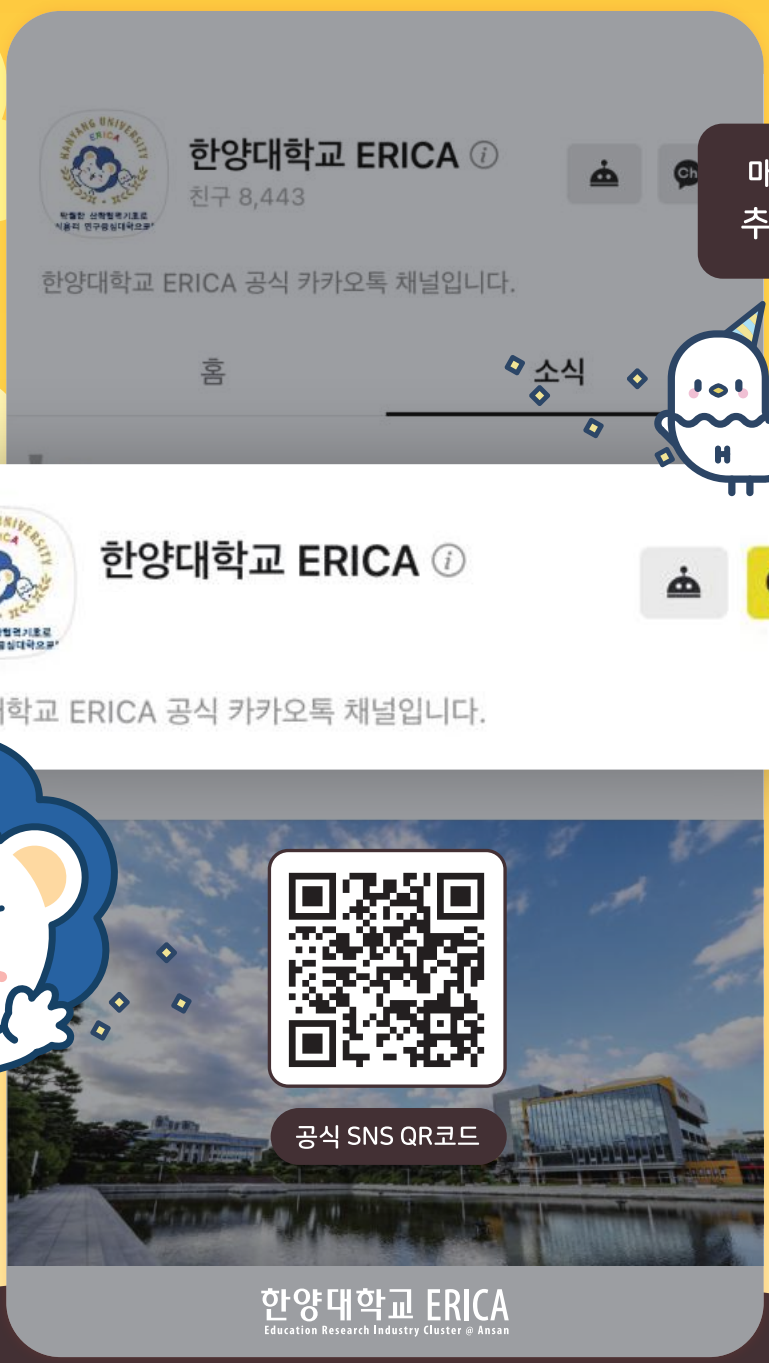
이용우 교수, 한국환경환림원 2022년 신입 정회원 선임



화학분자공학과 이용우 교수가 한국환경한림원 2022년 신입 정회원으로 선임됐다. 한국환경한림원은 2022년 신입회원으로 정회원 11명, 일반회원 28명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환경한림원은 환경보전에 현저히 기여를 한 우수 환경인을 발굴·우대하고 환경분야 학술연구와 지원사업, 국제교류를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1년 설립됐다.

한양대학교 ERICA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친구추가 하고 소식 받아가세요!



한양대학교 ERICA 기획홍보처 대외협력팀



ERICA!

학생, 대학, 세상의 가치를 잇다

학생이 최우선이고 + 연구로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 더 좋은 세상을 앞당기고

한양대학교 ERICA
Education Research Industry Cluster @ Ansan

3 VALUEs
- Education For Student VALUE : 학생가치중심교육
- Research For Social VALUE : 사회가치창출연구
- Management For Univ. VALUE : 대학가치실현경영